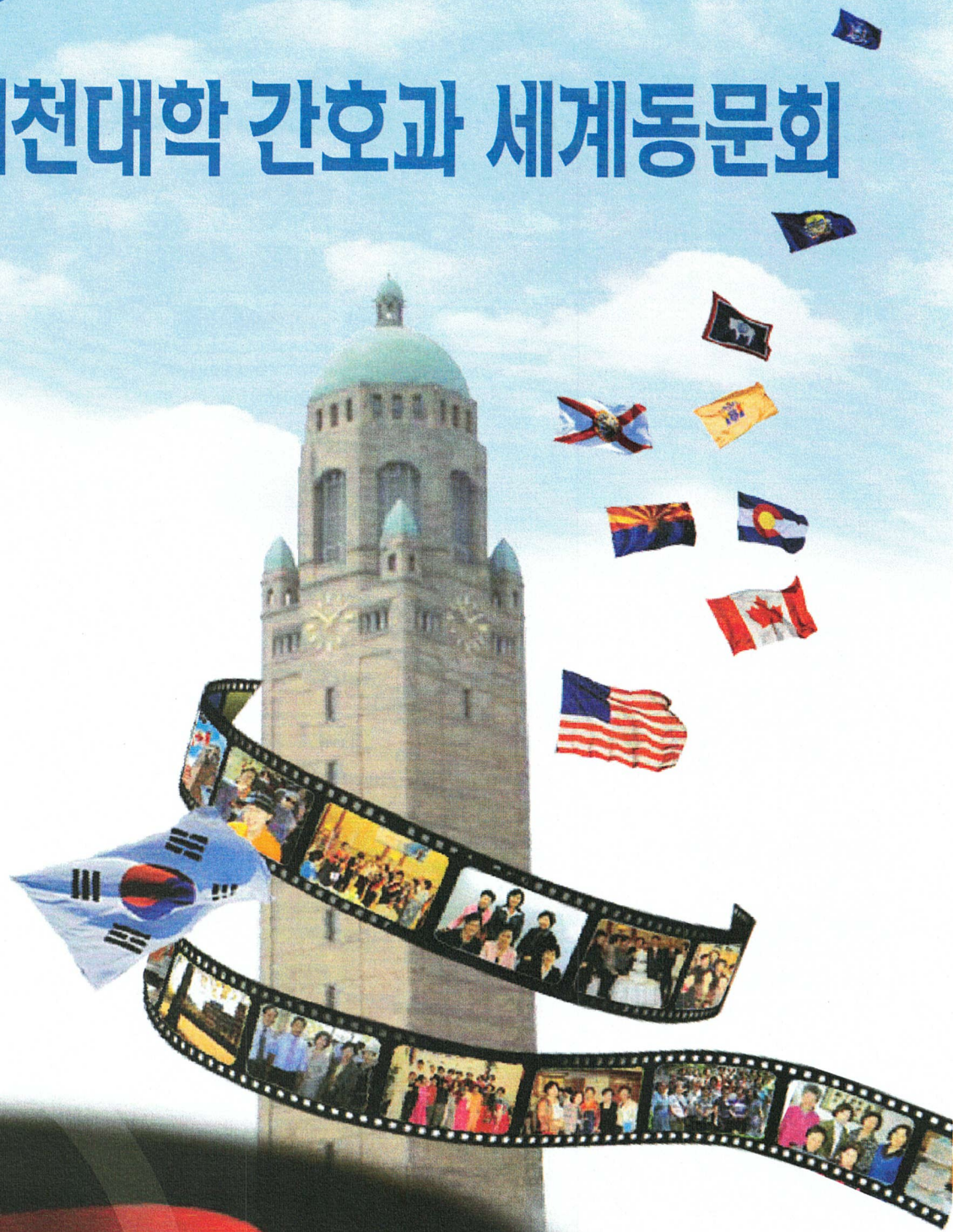


제 3 회



HYECHON UNIVERSITY

혜천대학 간호과 세계동문회



2010. 6. 4-8

Mercure Hotel
Raunheim in Deutschland



남가주 혜천대간호동문회 세계 총동문회 준비 위원들이 환하게 웃고 있다. 왼쪽부터 장순자 임원, 신근숙 임원, 이춘화 회장, 유분자 총회장, 김영순 준비위원장, 차귀옥 임원.



▶ 독일 준비위원

“독일서 전세계 동문 모임”

미주 혜천간호동문 80여명 6월 행사 참석

회 개최를 통해 과거 헤어졌던 동문들을 수십년 만에 재회할 기회

“반갑다 친구야. 독일 오는 6월4일부터 13일은 제3회 혜천대학교 간호동문회(회장 이대거) 참석해 정겨운 150여명 이상이 참가한 2007년 애나하임 회제를 맞으며 전 세계 동문들이 1년에 한 차례를 나누고 위로하기 특히 올해는 지난해 5,000여명의 한사가 열릴 예정이다. 이는 동문회 측 유분자 세계 총명의 동문들이 긴의 생명을 살리는

중앙일보 2010년 4월 24일 (토요일)

“독일 동문 만나러 가요”

혜천 간호동문회 프랑크푸르트서 세계대회

“5년동안 독일에서 일했습니다. 정말 고생이 심했죠. 독일이 선진국이긴 하지만 역시 우리에겐 남의 나라였죠. 너무 외롭고 답답해서 계약 기간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우린 돌아왔지만 거기에 남아서 가정을 꾸미고 이민생활을 꾸린 동문들이 그래서 더욱 자랑스럽습니다.”

1962년생인 신근숙씨의 시계는 1960년대로 돌아간다.

한국이 부강하지 못한 탓에 박정희 정부가 이끄는 대한민국을 먹여살리기 위해서 외화 몇 마르크 벌자고 독일로 파견됐던 수만 광부들과 셀 수 없는 수의 여자 간호사들. 이들중 상당수는 당시 산업이 전무했던 탓에 고학력, 전문직임에도 불구하고 독일로 돈벌러 갔던 것이다. 물론 신근숙씨같이 독일에 와서 일하고 한국으로 귀국했다 다시 미국으로 이민온 케이스도 많다.

혜천대 간호학과 세계총동문회(회장 유분자)가 제3회 세계대회를 독일에서

갖게 된 것도 이런 파독 간호사와 무관하지 않다.

유 회장은 “혜천대의 전신인 대전간호대학 졸업생들이 떠나면 독일에 가서 고생을 너무 많이 했다”며 “100여명이 남아서 그곳에서 가정을 꾸렸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신근숙씨는 “우리 학교의 역사가 바로 간호사들의 역사였다”며 “김계는 40년만에 만나게 되는 친구도 있을 것 같아 기대가 크다”고 말했다. 이번 만남이 경우에 따라선 50~60년만에 만나는 동문도 있다는 것이 유분자 회장의 설명이다.

“남가주에 동지를 둔 동문들은 직업이 간호사로 모두 같기에 토크를 통치기도 하고 정보도 서로 공유하고 30~40년을 참 좋게 지냈습니다. 모임을 가질 때마다 행복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번 독일행에 묘한 안쓰러움과 기대, 설레임을 품고 갑니다.”

동문회는 아직도 연락이 안되는 동



혜천대 동문회 임원진들. 시계 방향으로 뒷줄 왼쪽부터 신근숙씨, 이춘화 LA회장, 김영순씨, 장선자씨, 유분자 세계총동문회장, 차귀옥씨.

문들의 연락을 바라고 있다. 함께 독일에 가서 60년대 어려웠던 과거의 어려움도 이제는 훌훌 털고 추억으로 만들 때라는 것. 이번 방문은 6월4일부터

13일까지 프랑크푸르트로 가는 일정이다. ▷문의: (562)977-4580

장병희 기자
chang@koreadaily.com

사람&사람 9



ARIZONA

1961 신복례 Park, Bok Rie 480-563-3375
22436 N. 48th St. Phoenix, AZ 85054

CALIFORNIA

1969	강정애 Park, Jung Ae	H 626-821-0477 C 626-543-4741 duna@pacbell.com 268 W. Duarte Rd. Arcadia, CA 91007
1983	강현순 Cho, Hyun Soon	619-216-7591 2271 Cabobahia St. Chula Vista, CA91914
1971	길금자 Lee, Kum Ja	949-582-6739 26631 Strafoord, Mission Viejo, CA 92692
1969	김기문 Kim, Soo Ji	714-871-2028 823 N. Adelena Dr. Fullerton, CA 92833
1977	김명희 Yun, Myung Hee	714-523-7380 C 619-461-4167 5331 Emerywood Dr. Buena Park, CA 90621
1985	김보경 Choi, Bo Kyung	H 562-809-2080 C 562-519-3970 12526 Eckleson st Cerritos CA 90703
1986	김선겸 Han, Sunny	714-351-4655 victoriahan@hotmail.com 7700 Orangethorup Ave #15, Buena Park, CA 90621
1971	김선옥 Kim, Sun Ok	510-367-4558 402 Woodglen Dr. Richmond, CA 94806
1974	김순희 Chung, Soon hee	C 323-528-8156 W 213-625-7406 seasun47@gmail.com 10345 Almayo Ave. #104 Los Angeles, CA 90064
1959	김여원 Park, Yeo Won	951-301-4487 27859 Panorama Hills Dr. Menifee, CA 92584
1980	김연홍 Park, Yun Hong	H 323-937-8962 C 323-605-8131 phww2@hotmail.com 535 S. Curson Ave. # 3C Los Angeles, CA 90036
1968	김영선 Lim, Yung Sun	310-370-5867 5229 Towers St. Torrance, CA 90503
1972	김영순 Kim, Young Soon	714-895-4958 youngkimsoon@gmail.com 12182 Amethyst Cir. Garden Grove, CA 92845
1969	김원이 Oh, Won Yee	H 310-376-7615 C 310-547-7659 wonleeh@gmail.com 2607 W. 182nd Pl. Redondo Beach, CA 90378
1980	김은실 Lee, Eun Sil	H 818-352-8469 C 818-919-0502 jennny1234lee@gmail.com 1136 Provence Ln Tujunga, CA 91042
1959	김은중 Lee, Un Joong	H 310-202-6457 C 323-737-7415 unjoong9306@gmail.com 9306 Cresta Dr. Los Angeles, CA 90035
1979	김정순 Kim, Jeong soon	H 714-284-1187 C 714-267-3967 jeong112@gmail.com 2275 West Broadway # M212 Anaheim, CA 92804
1959	김태순 Hwang, Tae Soon	818-241-6559 hwangkeumal@hotmail.com 1858 Caminito Del Cielo Glendale, CA 91208
1981	김혜미 Kim, heymi	H 562-404-7768 C 714-496-6687 kheyimi@gmail.com 17218 parkvalle ave Cerritos Ca 90703
1960	남궁소자 Park, So Ja	714-538-2618 www.drpaknet.com 4642 E. Golden Eagle Ave. Orange, CA 92669
1973	박남희 Chung, Nam Hee	626-574-8346 235 W. Las Tunas Dr. Arcadia, CA 91007





▶ 배정자 동문이 독일의 이곳 저곳을 설명하고 있다

▶ 학술 포럼 후 기념 촬영: 김은중, 정혜자, 유분자, 남용희, 김민자, 이연호, 박정자, 백성기, 한인숙, 이강선, 이순재, 정경림



▶ 필라델피아의 동문들



▶ 학술포럼을 마치고 환송모임에서 건배!!



▶ 독일 김민자 회장(우) 그레이스 리 전도사(우)



제 3 회 혜천대학 간호과 세계총동문회



▶ 1955년 졸업 동기들.
대전간호학교의 배움터에서 맺은 우정이 미국 생활에서도
이어져 갔다. 이신자 동문의 70세 생일을 축하하기 위해
라스베이거스에서 만났다. 이 중 윤진홍 동문이 올 4월 29일
샌프란시스코에서 별세하였다.
(뒷줄 왼쪽부터 유석(시애틀), 이을복(시애틀),
주영숙(라스베이거스), 유분자(LA), 이신자(샌프란시스코),
신동(LA), 윤진홍(교인))



▶ 2010년 3월 남가주 동문회원들의 golf Club 모임



▶ 2010년 2월 남가주 동문회 정규모임





▶ 한국에서 개최 되었던 총동문회에 참석한 63회 졸업생들.
모교 교정에서 활짝 웃으며..



▶ 가관식 참석후



▶ 재유럽 동문들이 모임을 마치고



▶ 제2회 한국에서 열린 세계 총 동문회



▶ 2008년 제 2회 대회를 기념 하며 케익 커팅!!



▶ 제 2회 동문회를 마치고, 고국의 명승고지를 돌아보며..



▶ 재독 간호협회 42주년 학술포럼에 참석한 혜천인들의 모습



▶ 학술포럼 중.. 하교샴은 이야기를 참을 수가 없기에..*^^*



▶ 세계 각처에서 학술 포럼에 참석한 동문들!!
(왼쪽 위부터 시계방향으로 한인숙, 남용희, 정혜자, 이강선, 백성기,
임오선, 주낙언, 김민자, 유분자, 김은중, 박정자)



▶ 재독 간호협회 42주년 학술포럼에 세계 각처에서 참석한 동문들



▶ 2008년 5월 23일 재독 간호협회 파독 간호사 42주년 기념행사의 일환인 학술포럼 후
프랑크푸르크 손선홍 전 총영사와 김민자(좌), 유분자(우) 그리고 혜천 동문들





제 3 회 혜천대학 간호과 세계총동문회

화 보





▶ 2007년 제 1회 총동문회 준비위원 차기옥, 오차숙



▶ 재유럽 동문회 발족



▶ 좌로부터 김영순, 박청강, 오차숙, 유소자, 유분자, 하경희, 이용국 이사장, 백영철 학장, 정정희, 혜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축하 케익을 자르고 있는 모습



▶ LA 동문들, 남편들과 함께 준비한 1회 대회를 마치며..





▶ 2007년 제 1회 세계 총 동문회. 미서부 여행중 그랜드 케년에서...



▶ 환하게 웃고 있는 김정숙 동문!



▶ 콜로라도강에서 유람선을 타고, 이을복, 주영숙동문님은 무엇을 보며 도란도란 이야기 꽃을 피우실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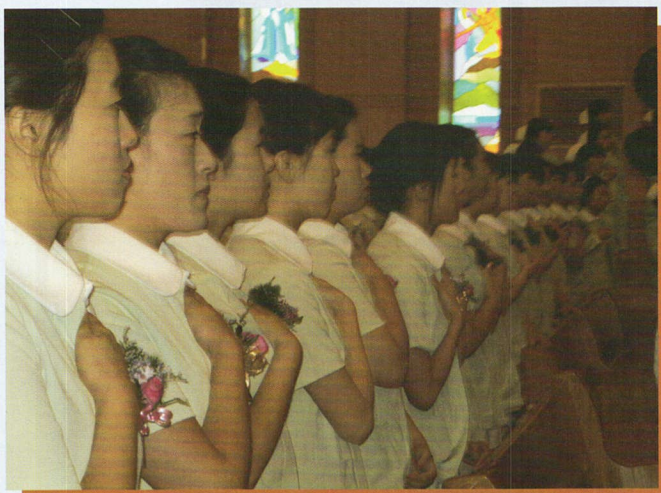
▶ 임오선 부회장(좌)과 유분자 회장(우)의 맞잡은 두손의 의미는?



▶ 영원한 후원자인 남편들이 있기에 늘 든든하다



▶ 2008년 제 2회 세계 총 동문회, 혜천대학 간호과 가관식



▶ 가관식에 참석한 후배들의 모습



▶ 제 63회 가관식(1960년)



▶ 혜천 대학 간호과 가관식 행사 후~~



잊지 못할 에피소드 모음



처음 독일에 왔을 때, 병동보다 수술실에서 일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수술실과 마취과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어느 날 동료 한 사람 어머니가 딸을 생각하여 마늘을 듬뿍 넣은 고추장을 소포로 붙여왔다.

그 맛있는 음식을 혼자 먹기 아까워 친구들과 밥을 해서 신나게 먹었는데 수술실에서 일하는 친구는 마늘장아찌를 13개나 먹고 근무를 나갔다. 그런데 수술 도중 난데없이 수술실 과장님이 “누가 Knoblauch(마늘)를 먹었느냐?”며 큰소리로 화를 내면서 나가라고 소리쳤는데, 왜 그러는지 전혀 그 상황을 판단하지 못한 그 친구는 밖으로 쫓겨나와 외국인이라고 차별하는 줄 알고 서러워 울었다. 독일 사람들이 마늘을 싫어한다는 것을 나중에나 알았고, 또 얼굴 맞대는 수술실에서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는 것을 몰랐다고...

이곳 사람들은 고마움의 표시로 대부분 초코렛을 선물하는데, 초코렛 이외에도 작은 선물로 “고맙다”는 표시를 한다. 환자들이 퇴원할 때 합동으로 쓰라고 모음 통에 돈을 넣어 주곤 하였는데, 한 할아버지가 내 손에 살짝 뭔가를 집어주면서 “네에게만 주는 것이니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세요.”라며 내 손에 작은 쇠붙이를 쥐어주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개를 푹 숙이고 절하듯이 인사를 하고 화장실에 들어가 펼쳐 보니 땀에 젖은 2마르크 동전이 해! 해! 해! 웃고 있었다.

어느 광산근로자아저씨가 밤 낮으로 몸이 쭈시고, 어지러움 증과 몸에 쥐가 난단다. 어느 날 용기를 내서 병원에 갔는데 자신의 건강상태를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난감해 하다가, 생각해 낸 것이 손으로 몸 전체를 만지며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몸에 쥐가 난다”는 표현을 하면서 “Maus komm hier und da, Hoch und Unter”라고 했는데, 그 의사 왈! “뭉라고요, 쥐가 방에 있어요?”했다니!!!

한국간호사 및 광원들을 가득 실은 어느 한국여객사에서 3박4일 예정으로 유럽 여행을 시작하였는데 독일과 홀란드 국경 가까이에서 화장실 휴식을 주었다.

“D”와 “H”라고 쓰여 있는 화장실 문을 바라보며, “아 독일(Deutschland)과 홀란드(Holland)의 경계선이라 화장실도 독일 사람과 홀란드사람이 가는 곳을 구분해 놓았구나!” 생각한 그들은, 자신들은 한국 사람이지만 독일에서 왔기 때문에 “D”라고 쓰여 있는 화장실 문 앞에 일렬로 서서 기다렸구나!!!

당뇨병으로 발가락에 이상이 있는 환자에게 “발가락이 좀 어떻습니까?”라고 묻고 싶은데 어떻게 물어야 할지 몰라 “Wie geht ihr FussFinger?” Fuss(발) Finger(손가락), 발 손가락이 좀 어떻습니까? 라고 했더니...

고추장에다 마늘은 넣은 양념고추장을 넣어 신나게 밥을 비벼 배불리 먹고 병동에 갔는데, 아 글썽 독일 학생간호사와 만나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갑자기 그 학생이 쓰러졌다고 하네요. 그래서 빈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자신에게서 난 마늘 냄새 때문에 기절을 했다고, 참!!!

* 이런저런 뿌리내리기 위해 겪었던 일들이, 이제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고, 이런 추억들을 함께 만들었던 파독 간호사들의 눈물이 웃음으로 변 집니다.

성금 후원자



한국 혜천대학 총동문회 (회장 송재금)



유분자 김은중 뉴저지/뉴욕 혜천동문회



김정희 이춘화 남가주 혜천동문회



윤충섭 윤혜심 박(유)공자



Yvette hinton 김영순 이효례 김정숙



박청강 장선자 이을복 김선옥 민상주 허영아
유영옥 송웅자 정정희

독일: \$2,000 한국: \$1,000 미국: \$500 캐나다: \$300 스위스: \$200-\$250 덴마크: \$100



2007년 제 1회 세계 총동문회. 독일 동문들이 남편들과 함께 독일 국기를 들고 소개 중



4막 : 우리는 현재 어디를 향해 걸어가고 있는가?

아이들이 없는 텅 빈 집을 지키며 홀로서기를 시작한지도 오랜 시간이 흘렀습니다.
독일인들이 한번 만져 보자며 감탄했던 치렁치렁한 까만 머리도 이제 하얀 눈송이로 변했고, 매력적이고, 이
지적이고 섹시하다는 그 Mandel Augen의 눈가엔 잔주름이 깊게 그늘을 만들고 있네요.
아침 번, 오후 번, 밤번 근무하랴, 남편 시중들랴, 자녀들 키우랴, 뿌리내리기 위한치열했던 언어싸움과 문화
충격 또한 옛 이야기로 남아 소중한 과독간호사 역사의 한 페이지를 기록하고 있네요.
영원히 엄마 품에 안겨 떠나지 않을 것 같았던 아이들마저 혼자 큰 양 집을 나가더니, 제 어미보다 제 짝들에
게 더 많은 사랑을 주고 있어, “못 된 녀석들” 하면서 눈을 흘기지만 되돌아오는 건 빈 메아리 뿐! “그래 당연한
것이야~” 혼자 내뱉는 독백 속에, 쓸쓸한 마음 혼자 달래 봅니다.
그것 뿐 인가요?

그렇게 좋았던 기억력은 어디로 갔는지, 금방 했던 이야기도 자꾸 되묻는 건망증까지 있어 아이들의 편안은
물론, 건강도 맘 같지 않아 자꾸만 뒷걸음질 칩니다.

그런데 참 이상한 것은 갈수록 한국 사람으로 변해져 가니 이 무슨 연고 인가요?

김치가 없으면 굶은 것 같고, 한국말을 하고 온 날은 잠도 잘 오고, 한국친구를 만나면 입이 욱할 때 까지 이야
기하고, 꼭 친정집 다녀 온 것 같은 한국여행은 늘 가슴을 떨리게 합니다.

“망령을 떨게 되면 독일말로 할까? 아니면 한국말로 할까?” 이런 질문을 던진 친구가 생각납니다. 그런데 아무
리 오랫동안 타지에서 살았다 해도, 본질의 상태로 돌아가 자신이 태어 난 고향, 자기언어 즉 자신의 모태를
찾는다고 하니 아마도 건망증이 나면 한국말로 망령을 떨겠지요?

이제 한국에서 산 연수 보다 독일에서 산 연수가 많아 한. 독 사람이 되어, 이곳 독일 나무들을 키울 흙으로
돌아가고 있는 우리들...

요즈음 부쩍 많은 부고장이 날아옵니다. 이래저래 한국 분들이 고생한 과거 때문인지 겨우 60세를 갓 넘어 일
찍 이별하는 분들이 자주 있고 그 중 한국 간호사들의 부고장도 자주 있어, 가슴을 도려내는 아픔으로 자꾸
만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어디서 왔는가!

그리고 무엇을 하는가!

또 과연 우리는 어디로 가는 걸까!

이 질문을 던지고 또 대답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정리를 해야겠네요.

붙잡아 뱉 수 없는 것이 세월이라는데, 물처럼, 바람처럼, 구름처럼 왔다가 사라지는 우리들의 죽음 이 이곳 나
무를 키울 흙으로 남겠지만 아마도 한국 고향 흙냄새를 풍기겠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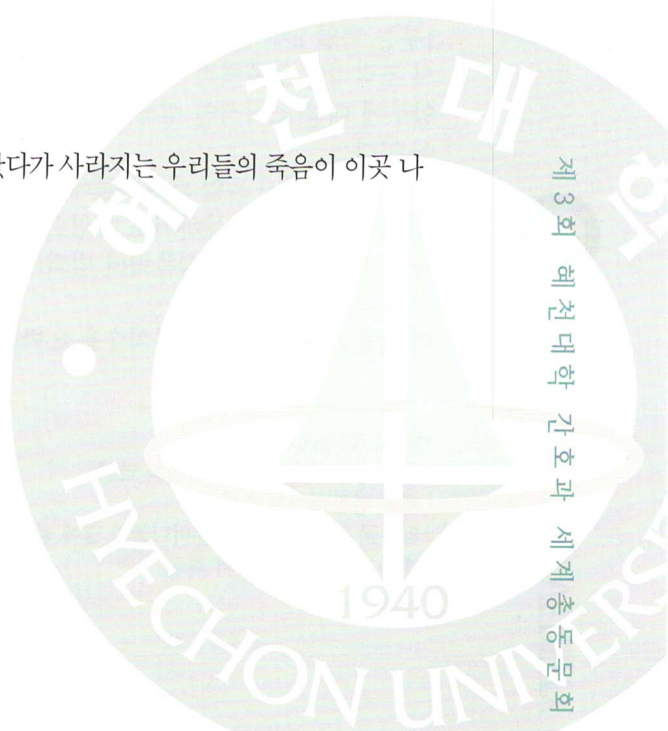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떠돌다 가는 길에,

정일랑 두지말자 미련일랑 두지 말자.

인생은 나그네길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어쩌면 우리들은 “삶의 하숙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전시와 평화시의 강제 매매춘”, “여성들과 소녀들에 대한 성”에 대한 책을 독일에서 출간하다.

한 정 로

(64년 졸업, 여성 운동가)

나는 1964년 대전간호학교를 졸업하고, 1966년 가을에 3년 계약으로 간호사로 독일에 왔다. 근 9년을 베를린 결핵병원과 자유대학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을 하다가 독일인과 결혼해서 살면서. 일제 시대 때 강제로 끌려가 일본군들을 위해 성노예자가 된 한국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한 운동이 세계에 퍼지자 독일에도 이 문제가 알려지면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1992년부터 지금까지 피해자들의 명예회복을 위해서 운동을 해오고 있다.

우리 역사의 진실을 독일에 알리기 위해서, 또 현재나 미래나 여성들에 대한 성폭력을 방지 하기 위하여, 자유대학 바바라 드링크 교수와 같이 2006년 말 “전시와 평화시의 강제 매매춘”, “여성들과 소녀들에 대한 성”이란 제목으로 독일어 책을 출간했다.

1년 후, 유럽 및 세계에 이 문제를 알리기 위해서 영어로 번역하여 책을 출간했다.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한 진실을 잘 알 수 있도록 많이 읽었으면 하는 바람과, 한국의 여러 재단이나 기관에서도 이 책을 읽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권했으면 한다.

독일이나 유럽 등 많은 나라의 대학 도서관이나 그 외 일반 도서관 등에 기부하여 우리나라 역사의 진실을 알리고 싶다.

이 책은 1부와 1부로 나뉘어져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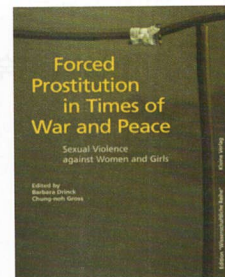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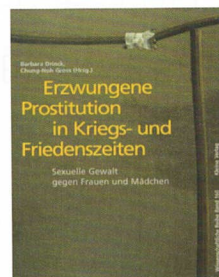
1부는 독일 2차 전쟁시, KZ-사창가에서 강제매매춘에 대한 독일범죄, 동유럽, 즉 보스니엔 및 아프리카에서 조직적인 성폭력과 강제매매춘 등을 독일 저자들이 썼고, 2부에는 한국과 중국, 동남아시아, 일본군위안부에 대한 조직적인 성폭력을 해부하고, 남측, 북측, 일본의 저자들 등 20명이 넘는 저자들의 글이 들어 있다.

독일 2차 전쟁시 독일 피해자들에 대한 역사를 글로 쓴 모니카 하우스 박사는 보스니엔 전쟁시 봉사자로 “대안 노벨상”을 수상하기도 하였으며, 그녀의 책을 통해 과거나 현재 그리고 전쟁이나 평화시에도 여성들에 대한 강제매매춘, 성폭력의 범죄가 일어나지 않도록 지속되어야 하며 또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 책들은 라벤스브룩 “나치수용소 박물관” 책 전시에 전시되어져 있다.

한정로 (Chung-Noh Gross)

- 한국 정신대 문제 대책 협의회 역임
- 재독 평화여성회 회원
-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 할머니들의 명예 공동 대표
- 재독 한국 여성 모임회 회원



“전시와 평화시의 강제 매매춘”, “여성들과 소녀들에 대한 성”



2막 : 서독 프랑크푸르트 공항 도착

155명의 까만 머리에 눈, 코 작은 동양여자들을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쏟아놓은 비행기 소리가 음산하게 들리던 늦은 저녁, 우리를 마중 나온 사람들과 토픽기사거리가 될 사진들을 찍느라 야단법석이 한 동안 일어났지요.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동양 여자들이 그들의 눈에 무척 신기해 보였겠지만 외국영화에서나 보았던 노란 머리에 코 크고 키 큰 외국 사람들을 실지로 보는 우리들도 신기하여 넋을 잃고 바라보았고 또한 한편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에 대한 두려움으로 횡한 눈만 깜빡 거렸답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타향살이는 시작이 되었지요.

1965년경부터 1976년까지 약 10,000여명이 넘는 간호사들이 프랑크푸르트 중부지역을 중심으로 에센, 뒤스부르크, 도르트문트, 듀셀도르프 지역 등으로, 문헨, 라벤스부르크, 하이델베르크, 마인츠 등 남부지역으로, 함부르크, 브레멘, 하노버, 킬 등 북부지역으로 또 서베를린으로 배치되었습니다.

다행이도 큰 도시의 시립, 대학병원에 배치된 간호사들은 그래도 일하기가 쉬웠지만 시골이나 양로원에 배치된 간호사들은 참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습니다.

음식과 문화충격으로 생기는 고달픔은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들었고, 언어소통에서 일어나는 갖가지 문제들은 정신적인 고통을 넘어 육체를 그냥 놔두지 않았습니다.

밥 나르고, 환자 목욕시키고, 청소하고, 이런 저런 심부름만 해야 하는 업무만이 계속 되는 동안, “말 못하는 외국인이라 이런 것만 시키는구나, 두고 보자”하면서 서러워 눈물도 엄청 흘렸고, 기숙사에 돌아와 “못된 것들”이라고 욕도 하였고, 언어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것 같은 공포에 사로 잡혀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이런 공포가 엄습할 때는 무서운 꿈까지 꾸었고, 3년의 긴 세월을 세어 보며 영원한 외로움을 맛보아야 했습니다.

그렇다고 말 못하는 주제에 이것저것 가릴 때가 아니잖아요. 독일어사전이 하얗게 허무러질 때 까지 언어공부를 하였고, 말 못하는 죄로 친절해야지 하며 엄청나게 친절하고,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대한민국 위상을 짊어지고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역시 돈은 좋은 것이었던지 월급 때가 되면 그 어려움은 흔적 없이 어디론가 사라져 버렸고, 흥분의 기다림은 황홀함으로 바뀌면서 온 천지를 아름답게 만들었습니다. 은행으로 달려가 돈을 찾고 또 우체국으로 달려가 돈을 받을 사람의 이름과 주소를 쓰는 동안, 왜 내가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대답은 물론 긍지로 기쁨을 찾았고, 또 다시 참을 수 있는 힘을 키우면서 흐뭇하게 집으로 돌아오곤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의 간호사들이 받았던 월급이 약 35,000원 정도가 되었으니 약 680마르크는 많은 액수였지요.

돈을 더 벌기 위해 쉬는 날도 쉬지 않고 다른 병원이나 양로원에서 일을 하였고, 버스비를 아끼느라 걸어서 다녔는가하면 빠듯한 생활비만 남겨놓고 누가 제일 많이 송금을 하는가 내기라도 하듯 한국으로 송금하기에 바빴습니다.

언어문제로 일어나는 해프닝들과 알아 듣지 못해 바보짓을 해야 했을 때는 얼마나 많았으며, 독일인 동료들이 웃을 때, 함께 웃지 못한 답답함은 또 얼마나 많았는지요. 겨우 50Kg 남짓 한 몸무게로 70-90Kg나 되는 거창한 환자들을 씻기고 돌보느라 침대에 곤두박질할 때도 또 나동그라질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잘 몰랐었는데 나이 들어감에 따라 그때 다친 허리가 자꾸만 아픔을 호소하고 있네요.

“세월이 약이겠지요”라는 노랫말처럼 점점 유능한 간호사, 친절하고 부지런한 간호사로 인정받게 되었고, 인기기사처럼 동료 및 환자들의 사랑을 독차지 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간호사들의 주사 놓는 기술이 온 나라에 퍼졌는데 꼭 한국간호사에게만 주사를 맞겠다고 고집하는 환자들이 있는가 하면 주사 놓는 방법을 배우려고 눈치를 보는 독일 간호사들로부터 인기가 대단했습니다.

큰 도시 건, 작은 도시 건, 시골이 건, “Mandel Augen, 한국 천사들” “부지런한 한국 간호사”등의 제목으로 언론과 매스컴에 기사가 제법 자주 실렸고, 길거리나 전철에서 “한국 간호사세요?”라며 친절히 말을 걸어오는 사람들도 있어, 한국인인 것에 큰 자부심을 갖기도 하였답니다.

그러나 다 좋은 일만 있었던 건만은 아닙니다.

적응하지 못해 정신적인 고통으로 우울증에 빠진 사람들, 스트레스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사람들, 견디지 못해 한국으로 되돌아간 사람들, 또 뜻밖의 사고로 죽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노동 계약 3년을 채우지 않고 미국과 캐나다로 간 사람들로 인하여 잠깐 한국간호사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슬한 이야기들은 삶의 한 장면일 뿐! 가족을 위한 사랑의 자부심이 강함을 만들어 냈고 그 강함은 고생과 외로움, 슬픔을 이길 수 있게 하였습니다.

3막 : 적응한 간호사들의 생활

그때 19살 내지 23살 정도의 나이들이었으니 얼마나 아리따웠겠어요.

꽃봉오리가 물을 먹음은 듯, 영롱한 이슬방울에 은빛이 비추이는 듯, 꽃에 나비가 모여드는 것은 자연법칙인 지라, 연애하고 싶은 것 또 당연했지요.

이제 적응도 했겠다, 돈도 좀 있겠다, 그리고 “Ich liebe Dich”라는 말도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단계까지 왔으니, 그 다음은 말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눈만 뜨면 험성한 멋진 독일 남자들이 윈크하면서 프러포즈 해오는데다, 외국영화에서나 보았던 남자들의 예절과 친절은 꿈인지 생인지 분간 못하도록 감동을 주었고, 아무리 진정하고 정신 차리려 해도 막 불속으로 빠져들어 가는 것이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는 쌍꺼풀을 한다 코를 높인다 하는데, 왜 들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유럽에서는 동양 사람의 눈을 Mandel Augen(아몬드 눈)이라며 sexy하고 매력적이라면서 닳을 놓고 좋아하거든요.

여하튼 늘씬한 갈색 머리의 독일 아가씨 대신 키 작고 성찰 꽤나 있는 우리들이 매력덩어리로 보였으니 소위 제 눈에 안경이라고 하는 건지, 아니면 운명이라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사랑에 빠진 그녀들은 3년 후 귀국하겠다는 약속을 까맣게 잊었고, 눈이 빠지게 기다리던 옛 애인들은 닭쫓던 개 지붕만 쳐다보는 허탈함으로 빠지게 하였습니다.

이리하여 노동자 한국간호사 역사로 부터 “Bundesrepublik Deutschland”의 한 국민으로 탈바꿈하는 한.독 역사가 시작되었지요.

한편 한국간호사들은 3년 고용계약 후에도 계약을 연장 할 수 있었지만 파독 광부들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여권 연장 길은 오직 결혼이라는 길 밖에는 없었으니, 간호사들의 인기는 또 한 번 하늘로 치켜 올랐으니 그 가치를 상상해 보세요.

그리하여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는 옛 속담을 실천으로 옮기려, 전 독일 병원으로 짝 찾아 나섰으니, 찍고 찍히는 나무들이 사랑의 열매로 맺어지면서, 이곳저곳에서 웨딩마치 노래와 함께 한국가정이 만들어졌으며 이로 인하여 독일에 한국 이민 역사와 한인사회가 형성되는 첫 발걸음이 되었습니다.

팔려가듯 조국과 고향을 등지고 허기진 배를 동여매면서, 이를 악물고 뿌리내리기를 했던 장한 한국간호사들이 한국여성으로, 한국 어머니로 더 나아가 독일 국민으로 자리 잡으며, 자녀들에게 결코 자신들의 고달픈 과거가 아닌, 희망찬 미래를 열어 주기 위하여 또 다시 희생과 봉사로써 자신을 불태웠던 장한 여인들이었지요.

소수민족이라고, 외국인이라고 또 이방인이라고 소외당할까봐 철저한 교육에 온 인생을 투자한 장한 어머니, 장한 아버지들이 이젠 독일 사회의 중견 인으로 진출한 자녀들을 보면서, 먼 하늘에 그려지는 고향노래가 진한 가슴앓이를 만들고 있네요.





글로벌 혜천을 향하여

이 춘 화

(남가주 혜천대학 간호과 동문회 회장, 79년 졸업)

보고싶은 독일 동문님을 비롯한 제3회 세계 혜천대학 간호과 총동문회에 참가하신 동문 여러분! 가장 이름답고 고귀한 신록의 계절 6월입니다. 이러한 싱그러운 계절에 제3회 세계혜천대학 간호과 모임을 독일에서 개최함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지난 50여년의 한인간호사 이민사에서 독일은 선구적 모태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혜천의 선배님께서는 깨끗하고 성실하게 독일에서 뿌리를 내리시고 한국인의 기상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곳 혜천대학 간호과 세계총동문회는 2007년도에 개최한 제1회 미국, 2008년도 제2회 한국, 2010년도 제3회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회 등으로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발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제2회때 독일에서 오신 많은 선배님들을 뵈으며 제가 겪어 보지 않은 세대를 다시 한번 인식하고 경의와 존경심을 금할 길이 없었습니다. 모든 선배님들께서는 한국의 간호사로서의 뿌리와 긍지를 잃지 않으시며 독일의 문화에도 뒤짐이 없이 은근과 끈기의 한국인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남가주 혜천대학 간호과 동문회 활동을 요약 보고합니다.

첫째, 본 동문회는 특별한 이벤트가 없을 경우에는 격월로 전 동문이 참여하는 정기 친목 회식 모임을 개최합니다.

둘째, 골프위원회가 주관하는 혜천골프대회를 봄, 가을로 연중 2회 개최합니다.

셋째, 매년 12월에는 송년모임을 개최하고, 신년초에는 구정맞이 웃놀이 잔치를 개최하고 있습니다.

넷째, 동문회를 항상 주위 환경과 소통하고 기여하는 동문회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남가주한인간호협회 기금모금, 각종 이벤트 및 학술 세미나, 그리고 남가주 한인간호협회 주최 골프토너먼트대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송년모임을 통해 동포사회가 공동으로 전개하는 사랑의 쌀 나누기 행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습니다.

세계 제3회 혜천대학 간호과 독일대회를 주최하시고 성공적인 대회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유분자 세계총동문회 회장님과 김민자 재유럽 동문회 회장님을 비롯한 모든 준비위원님께 남가주 동문회를 대표하여 감사와 축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혜천을 빛낼 제3회 세계 독일 프랑크푸르트대회를 위하여 세계 혜천대학 간호과 화이팅을 외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야기로 엮은 파독 간호사 역사

이 영 남

(1974년도 졸업, 독일 교포신문사 기자)

1막 : 돈 벌려고 서독으로 행한 백의의 천사들

때는 바야흐로 1965년 경, 한국은 전쟁과 일본의 압박으로부터 행방 된 후, 사회는 혼란으로, 국민들은 가난으로 한민족의 정체성을 잃었던 시절이었습니다. 밤 낮으로 일을 해도 먹을 것이 없어 허기진 배를 움켜쥐어야 했고 거리를 배회하는 거지들은 또 얼마나 많았는지요.

그때 당시 한국은 남. 북으로 분단된 나라, 일본의 식민지였던 나라, 전쟁으로 가난한 나라로만 세계에 알려졌던 미개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여곡절 끝에 “한국간호사 서독 진출”이라는 신문보도가 전국을 휩쓸면서, 잘 살아보라며 저마다 청운의 꿈을 꾸는 간호사들로 순식간에 동교동 해외개발공사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되었답니다. 적어도 1.5m의 키에 신체 건강한 여자야 한다는 조건에, 몇몇 키 작은 사람들은 긴 바지에 발꿈치를 들어 살짝 속이는가 하면, 사상조사를 한다고 사돈 팔촌까지 신원조사를 하였고 모든 것에 합격한 사람들은 곧 독일어 공부와 소양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약 2-3개월 간 교육을 받은 뒤, “대한민국”이라는 마크가 콕 찍힌 “여권”을 손에 쥐던 날, 환호인지 울음인지 모를 가슴 설렘을 달래려 막걸리 한잔에 나를 맡기고 밤새도록 이별 연습을 했었습니다.

아~ 떠나는구나!

“몸조심 하라게”, “야! 몸뎡이 조심혀~~”, “이 문딩이 가시나야! 몸뎡이 조심하라카나, 알았나?”, “제일 중요한 것은 건강이니 잘 살펴야 하느니라”.

떠나던 날 김포공항 대합실은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사투리의 이색적인 이별이 펼쳐졌는데 꼭 영화의 한 장면 같았습니다.

그 날 밤 한강물이 수위를 넘어 위험 상태라는 뉴스가 있었다는데, 백의의 천사들이 한국을 떠날 때 흘렸던 눈물 때문이었다고 밝혀졌습니다.

윙~ 귀를 부술 췌소리가 창공을 가르더니 어느새 서울 시가지가 시야에 나타났다가 콩알만 하게 보이더니 어느새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고, 하얀 구름이 잠깐 손짓하더니만 까만 밤만 계속되었습니다.

고추장을 싸면서 우셨던 엄마, 빵만 먹고 사는 그런 나라에 가서 어떻게 사느냐 던 동생, 가난이 원수라던 할머니, 잡지 못하는 못난 아비라며 코를 훌쩍거리시던 아버지, 올 때까지 기다리겠다며 애뜻하게 쳐다보던 애인을 생각하는지, 그 누구 하나 비행기 엔진 소리보다, 크게 말하는 이 없는 길고 긴 시간, 항공을 날았습니다.



리 같았다. 찾는 환자가 내 옆을 지나가는데도 몰라본채 그 환자방에 가서 찾는게 한 두번이 아니었다.

말 배우라 여기 생활에 적응하라 외로워 할 시간도 고향 생각을 할 시간도 없었던 것 같다. 부모님이 보고 싶고, 형제들이 그리울 때마다 그리움을 이쁘게 차곡차곡 접어 가슴 깊이 쌓아두면서 사는 걸 배운 것이 그 때가 아닌가 싶다. 외로운 시간을 만들고 싶지 않아 호수가를 자주 걷게 되었고, 시간이 나는 대로 뭐든지 배우러 다녔다. 그러다가 나 없이 못살겠다는 이쁘장한 마음을 가진 독일 청년을 만나 아들 녀석도 하나 딸 아이도 하나를 가진 오손도손한 가정이 이뤄졌다. 이쁜 아내로, 아이들이 기댈 수 있는 엄마로, 가정 주부로, 또 직장인으로써의 책임감에 몹시도 시간에 기다보니 하이힐이 운동화로, 치마가 진스바지로, 부라우스가 티셔츠로, 긴머리가 손질하기 쉬운 짧은 머리로 바뀌어져 갔다. 얼굴엔 가끔 땀글어 다니는 크림이라도 찍어 바를 시간이 주어지는 날은 흐뭇하기까지 했다.

밤번이 많을 땐 애들이 자주 들어와 깨우는 바람에 밤인지 낮인지 구별조차 어려울 때도 있었다. 이제는 그 아이들이 벌써 20Kg의 가방을 들고 여기에 온 내 나이가 되어간다.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기도 했다.

무엇인가 쓰고 싶다는 바람을 항상 가슴 한 구석에 지니고 살면서도 이리 미루고 저리 미루고...

여유가 있다 싶어 이제는 꼭 쓰고 싶다는 욕심이 생기는데 새로운 문제가 나를 어렵게 만든다. 나를 그려 볼수 있는 단어가 언제부터인가 하나씩 하나씩 사라진 모양이다. 나도 모르게...

꿈을 꾸면서 부모님을 만나고, 동생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 한참이나 지껄이고, 웃어대던 이런 그림들이 언제 부터인가 마구 섞어져 뒤범벅이 되기 시작했다.

눈이 작고, 코가 작고, 내 눈에 익은 얼굴들이 더러는 코가 크고 눈이 커져서 나한테는 아직 익숙하지 않은 얼굴들로 변해지기 시작한 것이다. 정겹고 귀에 익은 말이 아닌 쑥스러운 말을 하게 되어 꿈에서 깨고 나선 누구를 만났는지 무슨 얘기를 했는지 통 알 수가 없고 그래서 머리까지 아파왔다.

그러다간 것처럼 눈에 어색하던 그 얼굴들이 다정하게 느껴지고, 눈에 익어가고, 쑥스럽던 언어가 자꾸 편해지기 시작했다. 뭔가를 쓰고 싶어 쓰기 시작하다가 몇줄도 쓰지 못한 채 씁스름한 맛을 느낄 때가 많아지고, 한글말로 쓰기가 어려우면 독일말로... 독일말로 쓰다가 막히면 다시 한국말로...

이러기를 몇번 반복하다간 쓰던 종이를 어느 구석으론가 던져버리는 일이 자주 생기고 걸을 때마다 늘어진 종이가 자꾸만 발에 걸린다. 발에 채일 때마다 나를 끌어당기는 그 종이들의 매력에 또 다시 시작을 해보는 건 나의 어린마음이 아닌가 싶다.

동생한테서 한국사전을 선물로 받고 또 써보기로 마음을 가져보지만 뜻을 몰라서라기보다는 나를 그릴 수 있는 단어들이 하나씩 둘씩 나를 떠난지가 오래되어 사전을 찾아보기가 어렵다는 가슴 시린 현실에 부딪혀

“너, 한국사람이야?”라는 질문을 스스로 해 보고 친구의 “너 이제 한국에서 못 살아...”하던 말이 다시 꿈틀거리며 살어나 꺾이나 어지럽게 만든다. 그말이 맞는다면?

갑자기 소낙비 직전의 시꺼먼 구름처럼 두려움과 서글픔이 나를 덮어온다. 내가 풀인지, 나무인지를 알고 싶어, 홍역을 앓는 만큼이나 며칠을 두고 끄꿇 앓았다. 할머니가 되면 내 고향에 가서 한국 이웃들을 두리두리 두고, 한국말 실컨 지절여가며, 더운 여름엔 같이 앉아 주먹만한 상추쌈을 써서 입을 찹찹 벌려가며 먹으면서 살아야지... 하는 조그마한 꿈을 깊이 감춰두고 살던 내 소망이 물거품처럼 한알씩 한알씩 사라지는 것 같아 가슴이 저려오는 아픔을 느낀다.

한국에 가면, “아니, 무슨 사람이 저래, 독일에 오래 살더니 독일사람 다 됐네...” 라는 소릴 자주 듣게 될게고, 여기에 살면 백년이 지나도 난 한국사람이다.

그때 난, 누군가가 “너는 풀이야?” 하고 물으면 “아니...”라고 대답을 해 줄테고, “그럼 나무?”하고 물으면 “아니, 나무도 아냐?”라는 대답을 해줄 것 같다.



고마우신 베를린 선배님들 !

황 병 진

(74년 졸업, 비엔나)

희미해진 필름을 1974년의 가을로 되돌려 떠올리다 보니 베를린 동문회의 기억이 가장 큰 비중으로 한 장면씩 재
생되기에 이 기회를 통해 그 때 많이 사랑해 주셨던 모든 선배님들께 늦게나마 [아 후, 죄송해요] 이제라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누구나 마찬가지로 저 역시 높고 푸른 가을 하늘만큼이나 높은 꿈과 이상으로 희망이 가득한 가운데 생소한 독
일 땅을 밟았지만 한편으로는 커다란 두려움을 앞세우고 끌려가는 소처럼 기가 죽어 베를린 시립병원에 배정되
어 안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행히도 여기에서부터 커다란 행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중고생부터 줄
곧 선배였던 구민복 언니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상치 못하였기에 그 반가움과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고
그때부터 호강을 받았지요. 곧 이어, 지난 여름 동창회 때 반갑게 다시 뵈올 수 있었던 나광희 언니를 비롯하여 다
른 선배님들도 베를린에 10여분 이상 계시며 동창회도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1개월에 1번씩 갖
게 되는 동창회는 즐거운 만남뿐만 아니라 저에게는 가장 큰 위로와 스트레스 해소의 장소이며 의지가 되었습니
다. 한 분 한 분 다 나열하지 않은 선배님들의 따뜻하고 다정한 배려와 사랑 속에서 저는 큰 어려움 없이 외국생
활을 할 수 있었던 행운아이였습니다.

상다리가 부러지게 차려주시는 음식들을 어쩌나 맛있게 많이 먹었는지. 독일에 가면 양식만 먹어야 하는 줄 알았
는데, 불고기, 잡채, 찐쌀 수 없는 김치 등 여러 가지 한국음식을 고향에서 차려주는 잔칫상 못지 않게 훌륭하였습
니다. 물론 식욕이 왕성했지만 언어장벽, 문화차이, 병원 시스템 차이에서 오는 갈등과 스트레스를 해소 하기 위
하여, 향수를 달래기 위하여 먹고 또 먹으며 웃음 속에 즐거운 시간을 가졌던 게 생각나는군요.

동문회의 언니 댁을 방문하는 날은 마치 고향을 다니러 가는 마음처럼 기다려지고 기뻐했습니다. 그 만남을 통하
여 서로가 정보교환을 하며 삶의 영역과 교양을 넓혀 오던 일 들, 힘들었던 부분들을 서로 털어놓고 이야기하며
위로를 받았던 일들, 나중에 한국이 잘 살게 되면 독일인들을 가정부로 데려다 쓰자고 억지 다짐도 해 보며 웃음
을 터트리며 엔도르핀을 생산해 냈던 일들이 다시 떠올르는군요.

인생의 선배이고 독일 생활의 선배이신 언니들이 몸소 체험하시고 고생하시며 겪었던 경험담을 통하여, 그 동안
뒹아오신 지혜를 배우며 저는 해프닝을 덜 겪으며 지낼 수 있었지요. 이러한 소중한 추억거리는 오늘 까지 올 수
있는 해외 생활의 활력소가 되고 비타민이 되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35년 후에야 그 때 언니들의 열렬한 응원과 후원이 얼마나 고맙고 큰 힘이 되었었는지를 새삼 깨닫게 되며
이 지면을 통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재생되는 동문회 덕분에 그 때의 그분들을 곧 만나 뵈게 되리
라 생각하니 가슴이 설레 이기도 하며 이 기회에 이렇게 인사를 드릴 수가 있어서 다행으로 여깁니다. 아무튼 곧
또 새로운 한편의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혜천대학총동문회의 장편집으로 전개되며 이제는 유럽만이 아니라 세계
를 배경으로 스토리가 계속 이어질 수 있음에 기대를 하며 그날을 기다립니다.

아울러 세계 하늘 아래속에서 너무나도 훌륭하게, 자랑스럽게 활동하고 계시는 동문님들의 후배가 되고 동기가
되고 선배가 됨에 많은 감사를 드리며, 얼마 전부터 유행하던 대중가요 중 제가 좋아하는 노래, '우리의 만남은 우
연이 아니고 바람'이라는 노래를 떠올려 봅니다.





나의 미국 로체스터 생활

이 효 레

(63년 졸업, 샌디에고)

누구처럼 상냥하지도 않고 눈치에 둔한 나는 1967년 2월 미네소타 주에 있는 Rochester라는 자그마한 도시에 도착했다. 2년 코스인 Mayo Clinic 마취학교에서 마취를 공부하려고 온 것이다.

Mayo Clinic의 Women's Center Department에서 며칠을 묵으며 방을 얻고, 낮에는 수술실에서 실습을 배우고, 저녁에는 강의를 들으며, 어리둥절한 나의 미국 생활이 시작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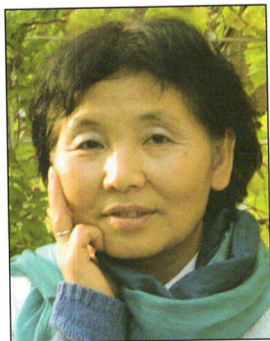
미국에 유학간다고 오빠의 권고대로 혼수감을 마련하듯 명동 노블 양장점에서 고급 옷을 몇벌 맞추었다. 새로 맞추어 입고 온 한국 겨울코트는 Rochester에선 봄 코트를 걸친 것처럼 춥기만 했다. 긴 겨울 부츠를 신었지만, 미니스커트만 가져와 추위에 얼은 나의 양쪽 무릎은 홍당무 색깔이 되었고, 미네소타의 혹독한 겨울 날씨는 나를 움츠려들게 하고 외롭게 만들어, 떠나 온 옛 병원의 기숙사를 더욱 그리워하게 했다. 그곳의 Rosewood침대, 따뜻한 선배 언니들, 빨간 둥근 식탁에 둘러 앉아 바삭거리던 새 돈의 월급을 세던 맛이 무척 그리웠다.

아주 훗 날에 깨달은 것이지만, 그 분은 내 삶의 지도에 대전간호학교를 내가 꿈꾸고 성장할 수 있는 터전으로 계획하신 것 같다.

대전간호학교의 존재조차도 모르고 있던 내가 운명이듯 동료를 통해 입학원서를 받았고, 입학 시험장에서 시험지 받기를 기다리던 순간, 무심코 옆에 앉은 수험생에게 던진 질문이 입학시험의 한 문제여서 신기했던 것이 아직도 생생하다. 3년간의 규칙적인 기숙사 생활에 익숙지 않던 나에겐 군대 같은 규율에, 하급생이 해야 할 임무며 처신이 얼음물에 발을 담구는 것처럼 머뭇거리지고 거부감을 느꼈다. 하루에 수십번씩 절을 하는 것 같았다. 청소, 초등시간, 기상시간, 식번, 선배 언니들.. 생전 처음으로 들어보는 낯선 단어들이었다. 내가 바로 위 선배들의 가시였는지 다른 친구들이 피한 기합도 나는 받았다. 기합장에 불려가서 들은 첫마디가 절을 고분히 안한다는 것이었다. 억지 춘향으로 기숙사생활규칙을 따라가면서 귀하고 훌륭한 선배들을 만났다.

아무 것도 모르고 초등시간에 들었던 유명한 오페라 아리아들이 너무 아름답고 애절해서 내 마음을 흔들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토스카의 "사랑의 묘약"에 나오는 아리아였다. 오페라를 보던 밤들, 기숙사 생활, 그 친구들, 선.후배들이 생각나 그리웠다. 아침마다의 조회에 열심히 했던 국민보건체조와 구보시간이 운동을 즐기는 습관을 나에게 주었고 건강관리에 큰 도움이 되었다. 밥 한접시에 국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운 간호학생 시절의 추억이 테니스장과 골프코스에서, 동양인이라고 알고보고 무시하는 백인여자들의 거만한 태도와 우월감을 꺾으려고 오랫동안 버둥거렸던 추억보다 더욱 소중한 어인 까닭일까? 그 때문에 같이 뿌리를 내린 친구들과 선.후배들이 그리운가 보다.

후배들을 키워주시고 도와주신 선배님들의 사랑을 무엇보다도 잊을 수가 없다. 감사하면서 그들을 그리는 마음으로 살아왔다. 독일에서의 만남은 우리가 꿈꾸던 시절, 젊었던 시절의 회포이고 회상이되어 설레인다. 우리 동문들만이 지닌 특이한 경험과 추억들. 옛 품안을 찾아온 듯 따뜻하고 정겹고, 반가운 시간들을 기다리며 비행기표를 샀다. 정서적으로 좋은 영양제가 되는 귀중한 모임이다. 이 잔치를 준비하느라 보이게 보이지 않게 수고하시는 동문님들께 나의 따뜻한 사랑을 드린다.



폴도 아니고 나무도 아니고

구민복
(73년 졸업, 독일)

언제부터인지 나는 생긋 웃으며 가끔 옛날에 잠기는 버릇이 생겼다.
이제 20Kg의 짐을 여기에 푼지도 거의 33년이란 긴 세월이 흘러갔으니 내 고향의 강,산이 적어도 세번이나 변했다는 말인데, 지금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아직은 학교에 들어갈 나이가 안되어 하루종일 집에서 짐승들하고만 놀기엔 너무 심심하고, 그렇다고 밭에 가서 심부름을 하기란 더 싫어 생각해 낸게 언니를 따라 학교에 가는 일이었다.

아침을 먹는둥 마는둥 언니보다 먼저 끝내고 대문 뒤에 숨어 있다가 이 나무 저 나무 뒤에 숨어가면서 몰래 언니 뒤를 따랐다. 학교문이 보일 때쯤에야 이젠 설마 돌아가라는 말은 못하겠지하고 대답하게 언니 앞에 나타나서 멋지게 웃었다. 내 땀엔 미안해서 애교라고 부리고 싶어 웃는 웃음이었을텐데 언니한테 어떻게 보였는지 지금도 모르는 일이다.

수업을 받는 사이 갑자기 쏟아진 소낙비로 건너야 되는 개천물이 많이 불은 날은 신을 벗어 들고(하기야 그때 고 무신이라 안벗어도 됐을텐데……) 언니 책가방을 끌어 안고 언니 등에 업혀서 건넜다. 나를 업고 힘들어 하는 언니와는 달리 이 길이 좀 길었으면 했다. 지금은 그 개천가가 없어졌을 것 같다.
20층쯤 되는 높은 아파트가 우뚝서 있을까? 아니면 넓다란 아스팔트 길이 됐을까?
꼬마들의 웃는 소리로 가득찬 이쁘장한 어린이 놀이터가 됐을지도 모른다.

갑자기 떡이 먹고 싶다는 아들 녀석의 말에 어릴적 명절이 되면 엄마를 따라 떡방앗간에 가던 일이 한쪽의 그림처럼 펼쳐온다. “엄마, 도와주세요.” 하면서 거길 유난히도 따라 가려고 한건 나만의 조그마한 비밀이 있어서였다. 떡방아 집 아저씨의 눈치를 보가며 엄마 몰래 찹쌀떡 한 주먹의 신설기(가래떡이 되기전의 익은 찹가루)를 훔쳐 먹었다. 따뜻한 그 신설기는 어쩔 그리도 맛이 있었는지 호랑이 같이 생긴 떡방아 집 아저씨의 무서운 얼굴도 잠깐은 잊어버렸다. 그때 훔쳐먹었던 한 주먹의 신설기의 맛이 손바닥에 와 닿았던 그 따스함을 난 지금도 가슴 한 구석에 포근히 간직하고 산다. 한국식품점에서 사온 한 접시의 신설기에서 엄마의 냄새는 물론 나는데 손바닥에 와 닿은 그 따스함도 없고, 옛날의 그 떡맛도 아니다.

정말 떡이 맛이 없는 걸까? 아니면 그때 훔쳐 먹었을 때의 아슬아슬함이 없어서일까?....

이 떡을 세쪽으로 나눈다면 한 쪽이 나의 한국에서의 삶이고, 두 조각은 여기 베를린의 삶이다. 그럼 이제 여기가 나의 고향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몇년전 한국에서 방문을 온 친구가 “너 이제 한국에서 못살아...” 했다.

찌꺼한 눈에, 찌꺼한 코에 변한게 없는 나, 한국사람이 한국에서 못살면 어디서 살라는 말이지?

친구의 말이 서운하고, 속으론 좀 토라지기까지 했다. 여기 베를린에 와서 처음 부인과 병동에서 일할 때, 어쩔 그리 코들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들 크고, 눈들도 크고, 다들 파마를 한 금발머리들, 그때 부인네들이 파마를 하는게 유행이 아니었나 싶다. 똑같은 환자 옷을 입고 누워 있는 환자를 구별하기란 콩 늘어놓고 구별을 하라는 소





나의 간호사 생활

윤 혜 심

(52년 졸업. 필라델피아)

나는 1966년 6월에 3년 계약으로 독일의 Speyer라는 조그마한 도시에 있는 수녀들이 운영하는 병원에 왔다. 루터 교 계통의 수녀들이 운영하는 이 병원에서 일하는 동안, 한국에서 계약한 월급의 액수보다 훨씬 적게 받았다. 도착한지 몇 달 후, 병원 Oberin (간호원장격)은 말도 못하는 나를 데리고 3명의 한국보조 간호사를 마중하기 위하여 Koeln 공항으로 가게 되었다.

이때 우연히 책임자를 만나게 되어 우리의 보수에 대하여 항의했는데, 그 결과 조금은 올라갔지만 한국에서 약속했던 계약보다 적었으며, 또 가족 수당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도 가족 수당을 받지 못했다. 그러던 어느 날, 한국 간호사 한 사람이 임신을 하여 돌아가겠다고 도와 달라고 한 일이 있었다. Oberin에게 이야기 했더니 안된다며, 아이들은 자기들이 운영하는 유아원에서 기르겠다고 하여, 할 수 없이 이 간호사를 몰래 도망시킨 일이 있었다.

이 일을 안 수녀들은 흥분하여 난리가 났고, 우리를 알선한 총 책임자가 한국에서 날아와야 했다. 이때다 싶어 월급관계와 가족수당 등 한국에서의 계약과 다른 노동조건임을 또 항의했다. 그 결과 수당을 지급받게 되었으며, 2년째 되는 해에는 부 수간호사로 임명되었다.

우연히 프랑크푸르트 병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를 만나, 월급이 우리 두 배 이상인 것도 알게 되었고, 3년 계약 후, 2년을 더 연장하게 되면서 병원을 옮겨 근무하게 되었다.

1971년 7월에 한국으로 귀국하여 시립병원에 취직하였는데, 한 달 월급이 쌀 한 가마니 값밖에 안되어, 할 수 없이 미국 이민을 수속했고, 1973년 4월에 필라델피아의 수녀 병원에 취직한 뒤, 1년 후 R.N 에 합격하였다.

Two Job을 뛰면서 65세가 되어 정년퇴직을 하였는데, 정년 후 2년 정도 쉬면서 영어를 사용하지 않으니 자꾸 잊어 버려 다시 파트타임으로 취직해 지금까지 일하고 있다.

내가 미국에 올 때 까지 교회에 나가 본 일은 없지만, 크리스천들인 내 주위 사람들의 기도와 실질적인 도움으로 잘 정착할 수 있었음에 늘 감사하며 살고 있다.



내 생활의 삼형제, 행운, 행복, 복

송 춘 자

(66년 졸업, 독일)

행운은 기회이다!

웃을 수 있는 기회, 울 수 있는 기회, 이야기 할 수 있는 기회, 먹을 수 있는 기회,
잠을 잘 수 있는 기회, 무엇인가 원했던 것을 얻을 수 있고 또는 구할 수 있는 기회,
우리들에게 수 없이 주어지는 일상생활 속의 기회 들을 자세히 들여다 볼 때
그것들이 나의 삶속의 행운임을 알게 된다.

행복이란 마음의 느낌이다!

침침했던 날씨에서 갑자기 햇살이 나와 환한 빛을 보여줄 때, 무거웠던 마음이
가벼워졌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따뜻함을 느낄 때, 누군가를 좋아할 때,
마음속 깊숙히 흐르는 정에 따스함을 느낄 때, 마음은 날개를 달고 나르는 느낌이다.

복이란 운명의 길이다!

행운과 행복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때, 지금의 위치와 상태에 보람을 갖게 되고
감사함을 느끼며, 우리가 출생하면서 가지고 온 재산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존재할 수 있다는 이 사실이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 태어난 것이며, 깨닫기 위해서 어제와 오늘 속에서
열심을 부리고 있다.

이 행운, 행복, 복 삼형제들을 찾아서 헤맬 필요도 없고, 또는 부족하다고 한탄할 필요도 없는 것이다.
자연의 움직임에 겸손할 수 있을 때 또 자연의 흐름 속에서 대화를 나눌 수 있을 때
우리는 기회와, 느낌과, 운명의 길을 자신의 그림자와 같이 친하게 지내며
살아 갈 수 있다.





34년 전의 소중한 기억들

이 순 옥

(74년 졸업, 독일)

그 당시 인기 가수 이미자씨의 “서울이여 안녕!”을 들으며 1976년 2월3일 나는 독일 베를린 공항에 도착했다. 그렇게 그리던 유럽을 향해 떠난 날이 엇그제 같은데 벌써 34년이란 세월이 흘러갔다.

한국을 떠날 때 23살이던 내가 이제 57살이라는 중년으로 접어들어, 한국 생활 보다 독일 생활에 더 익숙해 진 것을 발견하고 참 많은 세월이 흘러갔음을 느낀다.

너무 오랜 동안 한국을 떠난 것도 있지만, 한국 사람들과의 접촉이 많이 없기 때문인지 나는 한국말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을 갖고 있다.

KBS World 뉴스를 볼 때나 한국 책을 읽을 때나 한국 방문 때 만나는 사람들과의 대화에서 조차도 어려움을 갖고 있어서 “어디서 왔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기도 한다.

유럽!

하라는 공부는 하지 않고 몰래 유럽 소설을 읽으면서 언젠가 한 번 그리던 유럽을 꼭 가보리라 꿈을 꾸었던 사춘기 시절이 생각난다.

내가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그때 여성 직업으로 인기가 있던 양호교사와 중, 고등학교 교련교사 직장을 뿌리치고, 강력하게 말리셨던 부모님의 반대도 무릅쓰고 31명의 동료들과 함께 독일의 길을 향해 베를린으로 오게 되었다. 천주교 계통인 “마리아트로스트라”라는 개인 병원에 혼자 배치되었으나, 이미 일하고 있던 4명의 선배간호사들의 도움으로 어렵지 않은 시작을 하게 되었다.

그때 정성스럽게 손수 만든 음식으로 나를 환영해준 그 선배들의 정성과 음식의 맛을 지금도 잊지 못할 기억으로 남아 있다.

그리고 먼저 온 선배들이 피와 땀으로 닦아 놓아 그 덕으로 쉽고 편하게 독일 생활을 할 수 있었다. 또 열심히 일했던 그들의 모습이 존경스럽기도 하다.

특히 그 병원에서는 간호사와 보조 간호사의 업무가 현저하게 틀려 그리 힘든 일을 하지 않고 근무를 했고 수녀 간호사의 도움으로 일을 빨리 배울 수 있었다.

아직도 떠나지 않는 기억이 또 있다.

내과병동에서 근무할 때 그 병동에서 자주 환자들이 죽었는데, 죽은 환자를 시체실로 옮긴 뒤, 가족들이 올 때는 함께 시체실로 가야했는데 그때 마다 무서워 혼자 가지 못해 기숙사에 전화를 하여 한국인 간호사와 함께 가곤 하였다.

언어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던 기억, 전화를 받으면서 실수했던 기억, 그리고 100Kg 이 넘는 환자들을 네사람이 모여 옮겼던 생각 등의 기억들도 난다.

나에게 더욱 더 큰 기억으로 남는 일은 독일 도착 겨우 8개월 만에 내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은 독일 남편과의 만남이다. 그 후 결혼하여 남매를 낳고 아주 평범한 부부로 살고 있는 일들을 생각할 때 마다 늘 감사한 마음이다.



늘 생각해도 아름다운 추억들

강 현 숙

(74년 졸업, 독일)

독일 생활에서 많은 것이 나를 사로잡았지만 그중 한 가지 만을 꼭 집어 보라면, 1975년도 4월에 온 나에게 독일이라면 누구나가 문화생활에 접하는 평등함을 들 수 있다.

잘 닦아진 도로와 도로가의 나무들, 주위의 정돈된 집과 정원, 도로 위로 조용하게 굴러가는 좋은 차들, 어떤 직종에 종사를 하던 퇴근하면 집에 돌아와 가족들과 함께 집과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는 평화로움이 무척 부러웠다.

생활비나 아이들 교육비 등을 벌기 위해 아웅 다웅하지 않고, 있는 것에 만족하고 돈이나 시간을 남용하지 않고, 그러면서도 검소하고 성실한 생활습관이 한국사회와 비교가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

난 우리 가족이 이런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이 오기를 참으로 고대하게 되었다.

이때부터 스스로가 한국에 대한 애착심, 집안에 효도하고픈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여 봉급날이 오면 하루라도 빨리 송금하려고 은행을 드나들었다. 그때 송금하면 약 10일 정도가 걸려 집에 도착했다.

휴가비와 크리스마스 보너스가 나와도 지극히 적은 금액만 생활비로 남기고, 모두 가족에게 여러가지 명칭을 달아서 보냈다.

그때는 우리 간호사들 모두가 한국도 독일처럼 잘 사는 나라를 만들어 보고 싶은 심정이었으니까!

몇몇은 주변나라 여행을 가보고 싶어 했지만, 나에게는 사치로 느껴져 여행 한 번 제대로 못해 본 촌스러움이 지금도 내 마음 깊숙이 사로 잡혀 있다.

이런 우리를 지금은 돌아가신 간호원장 앵엘베르타 수녀님은 자랑스러워 했고, 한국인들을 무척 사랑해 주시고 신경을 써 주셨다. 그 분은 1960년대부터 몇 차례에 걸쳐 오직 한국 간호사만 초청했다.

그때까지는 간호조무사들이 왔었는데 각 병동에서 너무나 열심히 일했다. 그 중 몇 명은 3년 계약이 끝나고 독일 간호학교에 들어가 졸업하고 지금도 일하고 있다.

맨 나중 우리 간호사 4명을 초청해, 봉급도 좋은 급수로 책정해 주시고, 우리가 함께 식사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같은 시간을 짜주시고 큰 냄비나 주발 등 한국 음식을 담을 수 있는 그릇도 많이 준비해 주셨다.

또 처음 와서 독일 돈이 없었는데, 미리 200 마르크를 가불해 주시고 한 달간 병원 식당에서 무료로 식사할 수 있는 식권도 주셨다.

적어도 1주일에 한 번은 기숙사를 방문해 우리와 대화를 나누며 어려움이 있는지 묻기도 하신 그 분은 독일 어머니로써 우리를 지키신다고도 하셨다.

이런 배경 덕에 독일어가 서툴러도 우리가 병동에서도 다른 동료들보다 기가 살아서 지냈으며, 일요일 뿐만 아니라 크리스마스 행사 때 다른 수녀들과 함께 노래연습. 축제준비도 함께 했다.

나는 가톨릭 신자도 아닌데도 잘 따라 다녔으며, 한 가족처럼 지낼 수 있도록 배려가 무척 고맙고 독일 생활에 정신적 터전이 되는 가르침이었다.

특히 나의 조국도 지금은 그때보다 여러 면으로 수준이 있고, 잘 사는 나라가 되어 보람을 느낀다.

요즈음은 길가에서 우연히 마주치는 한국인유학생들만 봐도 먼저 인사말을 건네고 초대하여 밥과 김치를 나누어 준다. 어려웠던 그때의 내 모습을 떠올리며, 그들의 어려움을 잘 이해 할 수 있기에.



서 두 분은 뜨거운 눈물과 함께 서로를 포옹했다. 몇 시간의 정담을 나누고 박노문 동문을 차까지 바래다 주려 갔던 김은중 동문은 집을 잃어버려 독일 집마다 두드리며 “Lim”씨 성을 찾았다는 에피소드가 있다.



행복한 시간들은 참으로 빨리 가는가 보다. 어느덧 미국으로 돌아올 때 몇몇 동문님들이 프랑크푸르트 역까지 나와 석별의 정을 나누고, 공항에 바래다 주며 이별의 아쉬움에 끝까지 손을 흔들던 김민자 동문의 모습.. 제게 주신 속옷과 스웨터, 자켓, 아직도 잘 입고 있어요. 고마워요. 언니.

그들은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여인들이었다. 마치. 한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내듯이 일제로 독일을 살아가는 그들에게는 많은 아픔과 눈물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눈물로 인해 독일 땅에는 많은 생명들이 그들의 손을 통해 새 생명을 얻었으며 독일속에 한국인으로 아름답게 자리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 당시의 아픔을 이야기하자면 열권의 책도 각자에게는 모자랄 것이다. 그러나 그 아픔을 뒤로 한채 성숙한 여인들로서 있는 그 모습 속에서 인생의 깊은 향기를 느낄 수 있었다. 마치. 옛날의 한국의 어머니들과 같은.

그리고 그들의 대모와 같으신 유분자 회장님. 어머니의 마음으로 달려가 후배들을 품어 주시고 함께 울며 품어주신 그 사랑. 저도 그런 인생 살고 싶습니다.

그곳에 계신 김민자, Peter Schloendorf, 박화자, 박정자, 주낙언, 임오선, 한인숙, 백성기, 이순재, 이강선, 이연호, 정경님, 정혜자, 남용희, 배정자, 김인선, 한정로, 구민복, 방영숙, 나광희, 박순녀, 오희숙, 홍성자, 이영남, 박노문, 임원순.. 동문님들. 그리고 미국에서 가신 김은중 동문님.



한분 한분의 이름을 부르며 그리움을 전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들은 이 세상에서 제가 만난 가장 아름다운 분들이십니다. 그 살아온 인생을 통해 찬란하게 빛나는 보석입니다.

그리고 나의 영원한 그리움입니다. 언젠가 뵈을 날을 기리며.



역경을 이긴 뒤의 행복

배 정 자

(61년 졸업, 독일)

1966년 독일이 어떤 나라인지도 모르고 무조건 돈을 더 벌겠지 하는 기대로 이곳에 도착했다. 그러나 기대와는 달리 나의 푸른 꿈은 검은 먹구름으로 변해 버렸다. 1961년 한국에서 나의 첫 봉급은 4300원, 마지막 독일로 떠나는 달의 봉급은 6000원이었으니 그 돈으로 지금 한국에서는 백반 한 그릇 먹기도 부족했다.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자 나에게 남겨진 유일한 유산은 남동생 3명 막내가 6살이었으니 다달이 타오는 월급 봉투는 서로 나누기에 여념이 없었고 아름다운 청춘을 즐기기에 여유가 없었으며 동생들의 뒷바라지에 쫓겨야만 하는 세월이었다.

독일! 선진국! 자동차의 나라! 제2차 대전에서 온 세계를 흔들어 놓은 나라! 하지만 나에게서는 언어의 장벽, 이방인의 서러움, 죽어라고 일만 해야 좋아하는 사람들! 그 뒤에 따르는 것은 고독뿐이었다. 향수는 꼬리에 꼬리를 물었고 눈물 콧물은 흘러 내렸다. 하나의 실낱 같은 희망은 월말에 봉급을 타면, 그대로 한국에 보내는 것이 되었다. 이것은 나의 기쁨이자 삶의 원동력이었다.

그 당시에는 전화를 걸 수도 없었다. 지금처럼 주말마다 부모님에게 안부전화 할 수 있는 편리한 통신 시설이 없었다. 파란 봉투의 Zeitpost Aerogramm 밖에 없었으니 편지를 받는 마음은 허전하기 짝이 없어서 눈물로 답장을 하며 읽어 내려갔다. 3년이 지나면서 나에게서는 차츰 언어도 익숙해지고 눈치 코치로 간호원으로서 하는 일에 적응도 되었고 돈을 더 벌기 위해 밤샘까지 했다. 3주간 밤샘을 하고 나면 1주간 휴가가 주어진다. 이 1주를 다시 다른 병원에서 근무를 했으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한 셈이었다.

야간근무! 밤새껏 일을 한 뒤에도 아침에는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들을 닦아주어야 한다. 가벼운 환자는 세수할 수 있는 준비만 해주지만, 중환자는 직접 닦아주어야 한다. 위에서부터 발끝까지 그리고 치아도 닦아주어야 되고, 틀이도 닦아서 끼워주어야 되고, 머리도 곱게 빗어주어야 되고 침상 정리까지... 이런 환자가 많으면 20명, 적어도 15명이었다. 새벽 3시부터 시작해서 7시까지 끝을 내야 한다. 이것 뿐만이 아니다. 중환자들의 간호는 무척 일이 많다. 링겔병도 갈아주어야 되고, 대소변도 받아 내어야 되고, 밤에 죽어가는 환자가 있으면 혼자서 덜덜 떨면서 일을 다 해야 된다. 의사가 사망확인서를 쓴 후면 간호사는 해야 할 일이 너무도 많아진다. 보호자 사망 보고, 밤이라고 보호자들이 오지 않겠다고 할 때면 간호사 혼자서 환자의 입이 벌어지지 않도록 머리에 서 턱밑까지 꼭꼭 붓대로 싸매어 주고, 하얀 시트로 전체를 덮은 후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 지하실 시체실에 보관해야 된다. 시체실에 데려다 놓고 돌아서는 순간은 기가 막히는 순간이다. 순간 내 어깨를 꼭 잡아 트는 것 같은 느낌! 귀신이 있다면 나를 잡아갈 것 같은 기분! 이런 밤당번이 끝나고 집에 도착하면 피로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돈이 원수라고 평평 울게 된다.

독일에서만 간호사 생활 13년을 지낸 뒤 나는 직업을 바꾸어 버렸다. 어린 아들을 재우고 밤번을 나가는 애미의 아픈 마음을 잊어버리려고 공부를 했다. 다행히 시험에 합격되어 내가 직접 경영하는 praxis생활을 32년 넘게 해서 지금은 완전히 자리를 잡았다.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아프다는 환자의 전화를 받으면 정성껏 도와주고 있다.

독일 생활 44년! 뼈속 깊이 스며 드는 인생길이었다. 60세가 넘는 지금 지난 삶을 감사한다. 크게 행복하면서 귀여운 손자까지 둔 할머니가 되어 버렸다. 쓰디쓴 고독의 세계에서 해방이 된 지금, 회상하면 가난은 인생의 기본 밑받침이었고 고독은 행운의 길로 인도하는 안내자였다. 그러니 가난은 죄가 아니요, 고독은 불행이 아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주신 독일 간호사님들

그레이스 리
(전도사, 싱글맘 사역자)

어머니의 중환으로 며칠을 병원에서 지내야 하는 나에게 반가운 분이 방문하셨다. 유분자 회장님. 언제나 어머니같이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그 날도 어머니의 문병을 친히 와 주시며 여러 이야기를 나누던 중 독일에 가야 하는데 함께 가면 어떠냐고 하셨다.

독일.. 독일은 사춘기 시절 전해린의 글에 심취해 사모하던 곳이었다. 어머니를 간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재독 간호사에 대해 전혀 아는 바 없는 나는 독일 행에 합류했다. 유분자 회장님, 김은중 동문과 함께 우리는 루프트자에 몸을 실었다.



마지막 독일을 떠나면서 박화자(LIM)동문님의 따스한 환송 축하 축배를 드는 모습

어린 시절 듣기만 했던 파독 간호사. 한번도 그들에 대해 피부로 느껴보지 못했지만 같은 이민의 삶을 사는 그분들에 대해 알고 싶었다. 유회장님은 “파독 간호사 42주년 기념 행사”에 강사로 초청이 되어 처음으로 독일에 계신 간호사들을 만나러 가셨다. 미지의 세계에 대한 호기심으로 떠난 독일행이 나에게 그리움이 될 줄은 전혀 생각치 못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에서 처음 만난 김 민자님은 남편되신 Peter Schloendorf와 함께 나오셨다. 처음 보아도 근면한 독일인의 모습을 읽을 수 있었다. 김 민자 동문(편의 상 동문으로 호칭)의 택은 아담한 2층 집이었고 무엇보다 인상적이었던 것은 작은 정원에 피어 있는 양귀비였다. 붉은 색의 양귀비는 화려하고 우아한 자태로 우리를 맞아주었다. 모든 것이 신기하고.. 김민자 동문의 남편께서 지어준 저녁은 영화의 한 장면 속에 주인공처럼 느껴지는 독일인이었다. 물 한방울도 아끼기 위해 주의를 주시던 그분을 보며 풍요와 낭비가 미덕인 것처럼 살고 있는 미국이 부끄러웠다. 김민자 동문이 처음 독일 오던 이야기를 들으며 그 당시 언어가 안 통하고 문화가 안 맞는 그곳에서 강하게 자리를 지켜온 모습이 참으로 훌륭했다. 30년전 처음 미국 땅을 밟아 장사하며 “go back to your country”하면서 네 나라로 돌아가라던 이야기에 울기도 많이 했는데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비록 처음 만났지만 마음을 함께 하는 부족함이 없었다.

독일의 동문들은 거의 연락이 없으셨다. 그럼에도 유분자 회장님의 소식을 듣고 스위스에서까지 달려오

신 모습을 보며 이번 독일 방문이 마른 땅에 내려지는 단비가 되는 것 같았다. 사랑하는 마음에, 보고픈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을 담고 왔노라는 유희장님의 말씀은 모든 동문들의 얼어붙어 있던 마음을 녹이고 하나되게 하는데 족했다. 누군가 한 사람의 사랑의 사도를 통해 그 안에 숨겨 두었던 사랑이 솟아나는 자리였다. 그래.. 사랑이면 되는데.. 누군가 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 잡기 시작하면 하나의 커다란 원으로 하나 되는데...하는 감격이 매년 집회때마다 마음을 적셨다. 이 귀한 말씀을 통해 2008년 5월 23일 드디어 김민자 동문을 회장으로 전 유럽 대전간호학교 동문회가 결성되었다. 드디어 더 이상 그들은 혼자가 아니었다.



홀로 살고 있는 주낙언 동문이 없는 시간을 내어 호텔까지 찾아와 하모니카를 연주해 준 것은 참으로 인상 깊다. 자신이 잘 하는 것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고픈 그 마음.. 그녀가 보고 싶다. 박정자 동문님이 주신 깊은 사랑도 마음에 담으며 지구 끝에서 만나는 또 다른 사랑을 맛보았다.

내가 가고 싶었던 문헨을 배정자 동문의 환대를 받으며 찾아가 커다란 호수도 보고 문헨을 가보며 특별히 병원으로 쓰는 자택에서 함께 지낸 며칠간은 그분이 그동안 못 준 사랑을 쏟아 부어주는 사랑의 소낙비를 맞는 시간이었다. 의사이기도 한 배정자 동문을 통해 치료를 받는 특권도 누리며 생각한다. "나도 간호사 될 걸..." 그만큼 지구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을 독일에서 보낼 수 있었다. 호스피스 사역을 하는 김인선 대표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녀의 외롭지만 주

어진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아름다운 여인을 볼 수 있었다.

나광희 동문댁에서 지내던 며칠간 독일 남편께서 준비해주신 아침을 함께 나누며 독일에 처음 올 당시의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그 아름다운 만남들을 다 열거하자면 아마도 밤을 새워야 할 것 같다. 일본으로 끌려갔던 위안부를 위해 일하는 한정으로 동문님을 보며 그녀 안에 숨겨진 역사에 대한 정의감도 느끼며 세계를 가슴에 품은 아름다운 여인을 만난 것 같았다. 그래.. 우리도 못하는 일을 하시는구나..존경의 머리가 숙여진다.

돌아오기 전날 우리는 프랑크푸르트로 돌아와 박화자 동문 댁으로 갔다. 집안에는 온통 유희장님과 일행을 맞기 위한 파티 분위기였다. 독일에 있는 모든 소시지는 다 모인 것 같았다. 아.. 그 유명하다는 독일의 소시지를 마음껏 먹을 수 있었다. 또한 우리를 위해 마련한 샴페인으로 만남을 축하하며 밤이 깊도록 유분자 회장님을 중심으로 많은 정담을 나누는 시간이었다. 임원순, 박노문, 박화자(다른 분), 김민자 동문이 오셨는데 임원순 동문께서는 유희장님을 만나기 위해 5월 25일 문헨 가는 기차에서 만날 예정이었다. 그러나 Stuttgart에서 승차해 잠깐 극적 만남을 갖고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이번에 프랑크푸르트 역에서 만나게 된 것이다. 간호학교 당시 유분자 선배로부터 벌을 서기도 해 마당의 풀을 뜯었다고 하셨다. 평생을 독신으로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시는 귀한 분이셨다. 그곳에서 귀한 만남이 있었다. 미국에서 가신 김은중 동문과 박노문 동문과의 만남이었다. 오십년 전 감정이 상한 상태로 헤어졌는데 그곳에





될 수 있도록 문을 개방하여 1986년 “여성회”로 명칭을 바꾸고, 2세 교육, 전통문화예술 홍보, 노후문제, 현지사회 융화 등 한국과 독일 간에 여러 관계를 맺고 폭넓게 활동하고 있다.

해마다 “백의 밤”을 개최하여 2세들과 독일인들에게 한국고유의 문화를 알리는데 전력을 다하고 있으며, 대표할 만한 문화 활동으로 춘향전, 흥부전, 심청전, 박씨 부인 등의 뮤지컬을 공연하고 있다. 거의 전문 인들이 다된 간호사들의 나이가 60을 넘고 있어 놀래지 않을 수 없다. 자체공연은 물론 전 독일 여러 한인 행사에도 초청되어 공연을 하는 등 그 인기가 대단하다.

1995년 11월에 함부르크 파독 간호사 25주년 기념행사로 함부르크 시청 초대와 시의 보조로 Cap San Diego 박물관 배에서 6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성대하게 개최되었고 이어 2006년 9월에는 30주년 기념 행사를 개최하여 한국간호사들의 위상과 한국인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기도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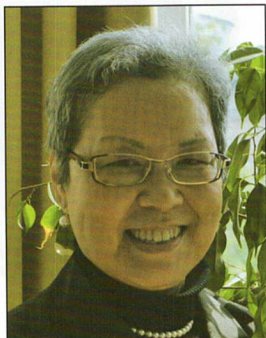
이제 독일 전국 간호사들의 현황도 그렇듯이, 함부르크도 이제 연금간호사들이 많아져 앞으로 4-5년이면 현장에서 물러나 서서히 기억 저편으로 사라질 날이 몇 년 남지 않았다.

뒤돌아보면 이미 우리 곁을 떠난 동료들도 있어 세월의 흐름을 안타까워하면서, 더 늦기 전에 한 번만이라도 함께 모여 자축이라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부르크 한국간호사 40주년 기념 행사” 자리를 만들어 보려는 것이다.

함부르크 여성회에서는 이런 뜻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작년부터 장소를 결정하고 행사내용을 준비중에, 마침 혜천대간호와 세계총동문회가 프랑크푸르트 근처 라운하임에서 개최되어 유분자 회장님이 독일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6월10일 초대강사로 모시고 함부르크 여성회 문학부 주관으로 강연회를 준비하게 되었다.



살아 온 삶보다, 짧게 남아 있을 우리의 삶을 가족과 이웃, 친구들과 한인들 그리고 독일인들이 모두 함께,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은 어떤 것일까? 하는 질문과 대답을 스스로에게 해보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해 보면서, 이젠 서로 어깨를 찬찬히 두드려주는 그런 동반자의 삶을 살아가면 어떨까 생각해 본다.



호스피스, 삶의 질을 높이는 또 하나의 지혜

김 인 선

(사단법인 동행 대표, 신학석사, 간호사)

남들이 질풍노도(疾風怒濤)라고 부르는 사춘기, 내 나이 열 여섯. 사전 그대로 '빠르게 부는 바람과 무섭게 소용돌이치는 물결'처럼 혼란스러운 시기여서일까. 한바탕 격동기를 겪은 것 같다. 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그때 잃었다. 나의 외할머니다. 3개월 동안 학교도 가지 않고 할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다. 고통의 언덕에서 묵묵히 죽음에 항의하던 할머니는 석양이 기우는 저녁, 하늘나라로 가셨다. 처음 느꼈던 삶과 죽음의 질퍽한 공포, 할머니의 마지막을 지켜보면서 '죽음과 죽어간다는 의미'가 사무쳤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의 내 모습이 딱 호스피스다. 환우를 마지막까지 버리지 않고 끝까지 동행하는 것. 난 그때 가족으로서 느끼는 이별의 '상실감'으로, 혹독한 호스피스 신고식을 치른 셈이다. 어쩌면 호스피스 활동과의 운명적 만남과 심연의 소리를 예고 받았는지도 모른다.

스물 두 살, 독일 땅을 밟은 후 줄곧 '죽음에 대한 사색'이 날 떠나지 않았다. 어느 쓸쓸한 겨울날, '난 어디서 죽을 것인가', '이 낯선 이국땅에서 쓸쓸한 노후와 죽음을 맞을 것인가'라는 물음이 떠나지 않았다. 그 질문은 비단 나뿐만이 아니다. 40여년 전, 청춘의 꿈을 안고 달려온 파독간호사와 광부, 그리고 이곳에서 죽어가는 동아시아 소수민족들이다. 이들은, 죽음은 삶의 연장선이고 세상의 일부라는 걸 인식하면서도 애써 모른 척 하고 싶어한다. 또 언젠가는 자신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갈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았기에 죽음에 대해 생각조차 하기 싫어한다. 그래서 갑작스럽게 다가온 사형선고 앞에서 공포를 느낀다.

이곳 독일에 있는 외국인, 특히 아시아인들은 공동체적인 문화적 특성 탓에 더 깊은 외로움을 체감한다. 그들은 나이들 수록 모태의 자궁, 즉 뿌리와 문화적 근성으로의 회귀본능이 강하다. 결국 그 해답은 호스피스에 있음을 요즘 새삼 깨닫는다. 건강할 때는 누구나 친구를 만들 수 있고, 의욕적이며, 혼자서도 무엇이든 감당할 수 있다. 하지만 나이 들고 병이 나면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삶을 지탱하기 힘들다. 수적으로 열세한 외국인의 경우는 더욱 그렇다. 치매에 걸려 모국어만 되뇌이는 환우에겐 병원의 도움도 무의미하다. 독일 간호사들이 소수민족의 언어와 문화를 알 턱이 없다. 그러기에 같은 문화권 내의 도움과 협력이 절실한 이유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완화의학이 발전하면서 그 어느 때보다 호스피스를 대안으로 삼고 있는 추세다. 별다른 버팀목 없이 묵묵히 성장해온 <동반자 이중문화간의 호스피스>가 올해로 5년째다. 겨우 걸음마를 떼 아이지만, 노령화되어가는 독일 내 동아시아인 숫자를 생각하면 성장촉진제라도 먹어야 할까 싶을 정도로 조급하다. 그 정도로 독일에서 유일하게 이중문화간의 호스피스 활동을 벌이는 우리의 역할에 무게감이 실린다.

요즘 우리나라의 경우도 외국인 문제와 다문화 정책이 이슈라고 알고 있다. 통계상으로 90년대 이후 유입된 외국인 노동자 및 결혼 이주자가 현재 35만 명에 육박한다고 한다. 이제 슬슬 우리나라도 나이 들어가는 외국인들의 죽음의 문제에 접근해야 할 때다.

그간 어려움 속에서도 독일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호스피스 활동을 전개한 우리가, 국내 외국인 정책의 작은 물모델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어쭙잖은 생각도 해본다. 아울러 국내에 거주한 외국인들의 거울을 통해, 오래전 국익을 위해 노동자로 나갔던 해외동포들의 서러운 청춘과 죽음까지도 투영되길 바란다.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한다.

2.2 직원 교육

간호는 기술이나 이론적 지식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므로 간호에 대한 자세나 마음 가짐이 중요하여 머리, 심장, 손이 일치 하여야 한다. 병의 원인이 육체의 질병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고, 정신적, 사회적 요소로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전인의학, 전인간호 즉 질병 중심의 간호에서 환자 중심의 간호로 전환하기 시작한다. 간호는 육체 이외에 정신, 사회, 환경 등을 고려해서 환자의 개인 인권을 존중하고, 그들의 관심사와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환자에게 숨겨진 가능성을 고려해서 계획된 간호를 해야 한다. 일반적 간호 기본 간호 뿐만 아니라 환자의 근심 걱정, 아픔, 가족이나 친구들로부터의 격리, 활동력의 부자유, 직장생활이나 개인생활에 의 불 참석 등에 대한 환자의 형편을 이해하고 고려해야 한다.

2.3 간호 계획

간호 계획은 전인간호를 실천하는 방법이다. 환자가 필요한 것을 조직적이고 전인적으로 그때그때 적용하여 간호계획을 세운다. 또 간호사와 환자 사이에 서로 좋은 관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간호계획은 여러 단계로 나누어지지만 서로 관련이 있다.

첫째, 정보수집 : 환자를 관찰하고 환자나 보호자와 대화를 나누어 간호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한다.

둘째, 문제점과 기회 : 환자의 문제점과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점을 알고 환자에게 숨어 있는 기회, 가능성 등을 찾아낸다

셋째, 계획 :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을 세우고 간호의 실지 업무를 구체적으로 계획한다.

넷째, 실천 : 계획된 간호를 실천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무조건 습관대로 실천 하는 것이 아니라 효과적인 간호를 위하여 그때그때 관찰하고 생각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섯째, 결과와 효과 : 실행한 간호의 결과를 기록하고 효과를 재고하고 다음 당번에게 인계한다.

환자의 상태나 효과에 따라 새로운 계획을 짜며, 환자를 될 수 있는 한 많이 참여시켜 그의 의견을 많이 고려해야 한다.

2.4 민주적인 지도자

의사는 하얀 가운을 입은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붙어 있을 정도로 병원의 상.하 구조가 군대 다음으로 엄하다. 그러나 민주주의적인 지도방법이 아니면 직원들이 창조능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위에서 명령하는 것만 하는 지루하고 발전성 없는 직원을 누가 원하는가? 자유분위기 속에서 인정 받는 직원들이 환자의 인권도 존중하고 진실되고 친절한 분위기를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

2.5 결론

전인간호는 간호하는 사람들에게 습관이 되어 눈 감고도 할 수 있는 간호를 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 자기가 한 일을 늘 점검하고, 다시 연구해서 환자의 상태에 맞도록 다시 계획을 짜는 일을 수시로 반복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다행히 우리 직원들은 나의 뜻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후원해 주었고, 병원으로부터 인정받고 환자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아 보람을 느끼고 더 열심히 일하였다. 나는 이 일을 실행하면서 1986년에서 1988년까지 오스나부룩에 있는 전문대학 간호원장 수련과에 적을 두고, 전국 각 처에서 온 간호원장들과 각자 자기 일터에서 실시한 경험들을 논문을 써서 발표하고 토의하며 연구하는 기회를 가졌다. 또 새로 얻은 지식을 우리 직원들에게 전하여 관심과 자부심을 높여주었다.

나는 명예나 금전적으로 성공한 건 아무 것도 없지만, 내가 좋아하는 직업에 충성하면서 조금이나마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수 있었다는데 보람을 느낀다.

역사를 이어가는 함부르크 한국 간호사 40년

독일 함부르크 여성회 문학부

2010년 10월 23일 함부르크 한인간호사 40주년 기념행사 개최를 위하여 준비하고 있는 함부르크 여성회는 이 행사의 연계프로그램으로 유분자(해천대학 간호과 총동문회 회장)씨를 초청하여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주제로 강연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작년 7월 김수지 총장(전 서울사이버대학교)의 “의사소통과 돌봄 이론” 강연회가 함부르크 지역 한인들의 많은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개최된 바 있다.

“아름다운 삶, 아름다운 마무리”라는 제목만으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들의 삶을 어떻게 하면 좀 더 보람되고 아름답게 살며 또 마무리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물음을 던져보고 또 깊게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될 것 같아 기대 또한 크다.

유분자 회장님은 2008년 재독간호협회 창립42주년 기념행사를 기해 독일에 초청되어, “내일은 다른 해가 뜬다.” 자서전을 소개하였고 독일 교포신문에 연재도 하여 이미 독일에 알려져 있다. 해외 간호사라는 같은 운명을 가진 것만으로도 충분히 대화의 광장을 마련하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하다.

우선 함부르크 한인여성회를 소개하기 전, 많은 한국간호사들의 제2의 고향이 된 함부르크를 소개하고 싶다.

함부르크 시는 독일 북부지역에 위치한 두 번째로 큰 도시로써 암스텔담 다음으로 큰 항구 도시이며, 베네치아보다 더 많은 수로(약 240개 정도의 다리를 가지고 있음)로 연결되어진 아름다운 수상도시요 녹색도시다.

또 한국과 100여년이 넘는 수교관계를 맺고 있으며, 특히 선박으로 한국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중부 독일과는 달리 한국 선박기술자 가족들의 정착과 3년 계약 후 연장에 관대했던 타 지역 한인들이 이곳에 거주하기 시작하면서 한인들이 늘게 되었고, 현재 약 3000여명이 살고 있다.

또한 함부르크는 오래전부터 외국인에 대해 관대하고 폭넓은 정치로 세계로 향한 도시라고 부르기도 하지만, 벌써 1963년 함부르크 감리교 수녀병원에 간호학생들이 온 것을 시작으로 1970년부터 1974년도까지 약 430여명의 간호사들이 함부르크 각 병원에 배치되어 근무하였으며 현재도 200여명의 간호사들이 살고 있다.

한국간호사 40주년이 시작된 197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 각 병원에서 근무를 시작한 간호사들은 1976년에 “백의 회”를 창립하였다. 주로 회원들 간의 친목을 위주로 하면서 정보교환, 정착문제, 병원생활의 안정화, 언어 문제로 인한 어려움 해결, 가정문제 조언, 회원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 등에 도움을 주었고, 특히 1982년부터 1990년 까지 바자회, 음식마자, 모금운동 등을 펼쳐 한국에 있는 3명의 불우 중학생에게 장학금을 주어 졸업하도록 하였다.

시간이 감에 따라 간호사 이외에 많은 한국여성들이 이곳에 정착하면서 한국여성이면 누구나가 회원이





제 2의 고향 독일에서 실천한 전인 간호

임 원 순

(56년 졸업, 독일)

제 2의 고향 독일

1.1 처음 타는 비행기

나는 어려서부터 독일이라는 나라에 호기심을 갖고 선호 하였다. 그것은 초등학교때 담임선생님이 자주 들려주시던 독일 이야기 때문인지 모른다. 예를 들어, 부지런하고 검소한 국민성을 가진 그들은 세 사람이 모이지 않고는 담뱃불을 붙이기 위하여 성냥불을 켜지 않는다든지, 낡고 떨어지기 쉬운 양복을 보호하기 위하여 무릎이나 팔꿈치에 다른 천을 붙여 꿰매 입는다는 것을 유행으로 만들었다든지 하는 이야기들이다.

제1차, 제2차 대전에 패망하여 온나라가 폐허가 되었지만, 그들은 도시마다 산처럼 쌓인 흙과 돌덩이를 기계도 없이 손으로 퍼낼라 새 도시를 건설하였다. 라인강의 기적을 이루고 세계 강국이 된 오늘날도 그들은 허영을 부리지 않고 건실한 생활 철학을 가지고 있다. 그들의 가치관은 돈이나 겉치레가 아니라 속사람의 진실하고 올바른 생활정신이다. 독일에서 오래 사는 우리도 이런 국민성을 배웠는지 고국 방문을 가면 독일 거지들 왔다고 비난을 받는다. 1956년 간호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을 가졌지만 외국 여행이 불가능한 우리나라에 선 어렸을 때 꿈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1966년 기적적으로 독일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 독일에서 간호사를 모집한다는 소식을 듣고 당장에 응모하였다. 1966년 5월 평생 처음으로 비행기를 타게 되었다. 그때는 정기적으로 한국과 독일을 왕래하는 비행기가 없었기 때문에, 스위스비행기를 전세 내어 우리를 데리러 왔고, 북한, 중국, 소련 등 공산국가를 통과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일본, 알래스카 등지로 돌아오느라 24시간 걸렸다. 밤 늦게 쿠엘른/본 비행장에 도착하니, 우리 네사람이 배정된 뒤셀도르프 분원에서 서무과장과 간호원장 대리가 마중 나와 있었다.

다음 날부터 시작된 독일생활은 너무나 생소하고 이색적이었다. 우리는 4주 동안 기숙사에서 쉬는 동안 조금씩 독일생활을 익혀가고 있었다. 우리를 맡은 간호사가 늘 함께하여 모든 것을 설명해 주고 안내해 주었다. 며칠 후, 가까이 있는 라인 강가에 산책 갔을 때는 이제 정말 독일에 왔구나 하는 실감이 났다. 병원식당에서 는 우리를 위해 밥을 해주었는데 설탕과 우유를 넣어서 만들었으니 우리 식성에 맞았을 리가 없었다.

1.2 계약기간 3년을 보내면서

처음에 3년 기약이라는 단어가 좀 꺼리기기는 했지만, 오히려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었다. 이 계약기간 동안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이상 우리를 마음대로 내 보낼 수 없었다. 4주 후에 우리는 처음으로 근무지에 배치되었다. 외과 여자병동이라 노령한 환자가 많고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환자가 많았다. 환자가 입원하면 간호사가 보호자로부터 환자를 인계 받는다. 환자가 할 수 없는 모든 간호를 간호사가 담당한다. 환자는 간호사를 완전히 신임하고 의지한다. 만일 보호자나 간호사 아닌 사람이 환자를 돕다가 실수해서 사고가 나면 간호사가 책임을 져야 한다. 3년간 근무하는 동안 언어, 습관, 문화, 풍습 등 일반생활에 익숙해져야 했

고, 직장에선 한국과는 다른 간호방법, 위생 예방, 재활 등 많은 것을 열심히 배웠다. 우리는 독일직원과 똑같은 대우를 법적으로도 보장 받았다.

길에서 만나는 국민들도 친절하여 우체국이나 은행 가는 길을 물으면 목적지까지 동행해주곤 했다. 한국에 대한 인식이 적어 일본에서 왔느냐고 묻는 이가 많았고, 베트남과 착각하고 아직도 전쟁중이냐고 묻기도 하였다. 우리는 세계지도를 가지고 다니면서 열심히 한국을 선전하였으며, 어느덧 3년 계약기간이 끝났는데도 아직 남아서 하고 싶은 일이 많았다.

1.3 안정된 독일생활

3년 계약기간을 마치고 북쪽지방(헤어휘드)으로 직장을 옮겼다. 이 도시는 중세기에 부흥된 중 소도시이며 시내 중심지에 옛날 성당(지금은 개신교 교회)이 5개나 있고 교회 음악학교로 유명한 도시다. 새로 얻은 직장은 가톨릭병원으로 수녀들이 운영하고 있었는데, 나는 여기서 근무하면서 수녀들이 완전 봉사와 이웃 사랑으로 간호하는 것을 보고 배웠다. 독일은 휴가와 휴일이 많아 여러 나라를 여행하고 문화, 예술, 문명 등을 즐겼다. 독일의 종교문화는 건축, 조각, 미술, 음악, 문학 등 무궁한 자원이 묻혀 있다. 동료와 친지들을 집으로 초대하여 한국 음식을 선전하기도 하면서 생활이 어느 정도 안정되자 하고 싶던 공부를 시작하였다.

1974년 괴팅엔에 있는 독일 적십자간호협회에서 운영하는 간호전문대학에 입학하였다. 전국 각처에서 모여든 학생들이라 기숙사에서 함께 지내면서 집중적인 강의를 받았다. 학교를 졸업하고 간호원장 자격과 간호학교교사 자격을 취득한 뒤, 남쪽 슈투트가르트 근처에 있는 병원에 취직하였다. 이 병원은 최신식으로 신축 중이었는데, 1975년에 완성될 예정이었던 건축이 지연되어 1979년에야 이사를 하게 되었다.

나는 새로 생긴 정형외과 간호과장직을 맡았다. 우리과는 내부장치나 기계, 간호용품도 모두 새로 준비해야 했다. 직원도 원장으로부터 모든 의사진을 새로 구성해야 했고 나는 간호사들을 새로 선출하고 모집하는 일에 신경을 썼다. 실력 있는 우리과 철학에 맞는 직원을 고르기 위함이다.

전 인 간 호

간호의 시초는 가정간호로부터 시작한다. 수도원과 수녀원이 생기면서 기독교적인 이웃 사랑과 어려운 사람을 돕는다는 자비와 봉사정신으로 이 일을 맡게 된다. 17-18세기 때부터 의학이 발달하면서 실물주의가 발달하여, 의사 중심의 육체적인 질병치료를 중심으로 하게 되어 간호사는 의사의 보조원 역할을 하게 된다. 20세기 스위스, 영국, 미국 등에서 많은 간호전문가들이 새로운 간호철학, 이론, 조직, 목적, 방법 등을 연구하였다. 전인간호를 위해선 여러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건물 구조와 설비도 중요하고 특히 직원들을 인식시키고 교육시켜야 했다. 직원들을 교육시키기 위하여 병원 안에 교육관을 설치하고 꾸준히 직원들의 실력을 길렀다. 나는 우리 과 직원들과 간호학교 학생들을 교육시키고 이해시키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했다.

2.1 구조와 조직

병동의 단위는 적어야 한 병동의 환자 수가 적어 환자의 상태를 잘 파악할 수 있고 빨리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한 간호사가 적당한 숫자의 환자를 맡아 환자의 모든 것을 돌본다. 필요한 모든 물건들이 과 안에 준비되어 있고, 간호사들이 오가는 거리가 짧아야 한다. 특히 자주 쓰는 세탁물이나 간호용품들은 각 병실과 복도 사이에 있는 장에 넣어두어 병실을 나가지 않고도 안에서 필요한 물건을 꺼내 쓸 수 있도록 한다. 환자를 직접 돌보는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등 모든 이들이 협력하여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은 방향으로 치료해야 한다. 그 중 간호사는 24시간 환자 옆에서 직접적인 간호를 하기 때문에 환자의 상태를 제일 잘 알고 환자가



그칠 것으로 생각하였으며, 중앙집권제와 계획경제는 자원의 고갈과 생산성의 감퇴를 불러오고 서독에서 거액의 차관을 들여온다. 또 특히 젊은 세대에게는 밀고와 끝없는 압제로 신뢰할 수 없는 대상이 되어갔고 동독 국민들 사이에는 자기결정권과 공동결정권, 개인의 자유와 소비재의 질적향상의 요구가 높아져갔다.

1980년대 중반에는 많은 사람들이 서독으로의 출국을 위한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동베를린의 서독 상설대표부와 프라하 및 바르샤바의 독일 대사관으로 몰려 들었다. 소련의 미하엘 고르바췌프는 긴장완화, 신뢰, 투명성을 지지하며 1985년부터 자유를 향해 진력한다.

1988년 동베를린의 평화단체인 “아래로부터의 교회” 회원 120명이 체포되었고 이 기회를 통해 게체마네 교회에서는 2천여 명이 참석한 기념예배가 드려진다. 2주 후 4천여 명이 교회로 모여들었고 드레스덴에서는 인권과 의사표현 및 언론의 자유를 요구하는 시위도 일어난다.

1989년 여름부터 동독체제는 점점 더 빨리 혼란의 소용돌이로 빠져들어 갔고 헝가리가 출국을 원하는 동독 시민들을 위해 국경을 개방함으로써 수천 명이 오스트리아를 경유하여 서독으로 넘어왔다. 1989년 10월초 건국 40주년 기념행사를 성대하게 거행할 때 “우리는 한 민족이다”라는 구호아래 시위가 벌어졌고, 마침내 에리히 호네커 동독서기장이 사임하고 후임자 에곤 크렌츠가 “전환”을 약속하지만 와해를 막지 못하고 내각과 독일 사회주의 통일당(SED)정치국은 총사퇴하게 된다.

7) 비폭력혁명 : 1989년 11월 9일 저녁 독일사회주의통일당의 베를린 지역 총 서기관 귄터 샤보프스키가 자유에 관한 새로운 규정을 발표하면서 베를린 국경 검문소 문이 활짝 열렸다. 이날 밤 국경거리와 서베를린의 쿠퍼휘르스텐담 광장에 이루 형용할 수 없는 환희의 광경이 연출되었다. “우리 독일인들은 지금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민족이다.”라는 외침이 몇 날 몇 달로 이어졌고, 민족을 갈라놓았던 동. 서독 장벽이 역사 속으로 사라져 갔다.

8) 동독에서의 자유총선 : 1990년 3월18일 40년 만에 처음으로 자유로운 선거를 할 수 있었고 경제, 화폐, 사회통합에 합의하는 등 동독 인민회의는 서독의 기본법 적용영역에 들어가게 된다. 1990년 9월12일 모스크바에서 서독, 동독, 미국, 소련, 영국, 프랑스 외무장관들이 이른바 “독일에 관한 조정 협정”에 서명하게 되었고, 이어 뉴욕에서 유럽안보협력회의의 외무장관회담에서도 성명을 통해 환영을 받았으며 마침내 1990년 10월3일 동독의 존재는 막을 내리고 통일이 되었다.

9) 베를린 공화국 : 1991년 6월20일 수도를 본에서 베를린으로 옮기기로 결의한 뒤 여러 개 정부부처가 옮기게 되면서, 2001년 5월21일 연방총리실의 열쇠가 연방총리에게로 건네지면서 베를린은 역사의 대도시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10) 독일 통일 : 통일된 뒤 독일은 여러 면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 동서간의 경제적 균등화를 위한 노력과, 유럽공동체(EG)를 구성하여 유럽을 하나로 묶고 있으며, 동독 출신 앙겔라 메어켈 연방수상이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여성 정치인으로 손꼽히고 있어 통독의 의미는 역사에서도 높이 평가받고 있다.



재유럽 혜천대학간호와 동문회가 태동하기까지

임 오 선

(재유럽 동문회 부회장, 64년 졸업)

18년 전 젊음을 같이 했던 옛 친구들과 기쁜 시간을 같이 함께 하고파, 1964년도 총 30명의 졸업생 중 독일에 거주하는 11명이 첫 동기모임을 가지게 되었다. 그후 매년 한번씩 3-8시간의 긴 기차 거리를 마다하고 모임을 가졌다. 이 감격스런 모임을 기회로 선.후배들의 소식을 접할 수 있었다.

12명의 프랑크푸르트 지역 동문들이 1년에 한 두 번씩 만나 각 개인 집을 돌아가며 친목과 깊은 우정도 나누는 즐거운 모임이었다.

2007년 제1회 혜천대학 간호과 총동문회가 로스앤젤레스 근교에서 개최되었을 때, 독일 동문 13명이 참석하여 미국, 캐나다, 한국에서 온 많은 선.후배들과 함께 어울려 지냈던 그 시간이 아직도 잊혀지지 않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있다.

그러던 중 2008년 5월 23일 재독 간호협회 과독 간호사 42주년 기념행사에 학술포럼 초빙강사로 독일 라팅엔에 오신 세계총동문회 회장 유분자 선배님과 김은중 선배님의 제안과 후원으로 스위스, 오스트리아, 독일에서 온 동문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민자 동문을 회장으로 선출하였다. 부회장에는 정혜자, 재정 이강선, 서기 남용희 동문을 선출하여 임원진을 구성하여 오랜 소원이었던 “재유럽 혜천대학 간호과 동문회”가 발족하였다.

두 선배님의 제안과 협조로 독일 동문회 발족에 첫 주춧돌을 놓게 되었고, 그 후 독일 전역을 포함, 스위스와 오스트리아 까지 흩어져 살고 있는 선.후배들을 찾아 보는 동안, 생각지 못한 많은 동문들이 이웃에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마침내 재유럽 혜천대학 간호과 동문 주소록을 만들었다.

2009년 7월 2일 제 2차 재 유럽 혜천대학 간호과 총동문회는 유럽에 거주하는 63명의 동문 중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비스바덴에서 개최되었다. 김민자 회장이 재임하기로 하고 임오선 동문이 부회장으로 선임되었다. 그 날 제 3회 세계 총동문회 개최 일자를 2010년 6월 4일부터 8일까지로 결정하고 준비위원을 구성하여 월 1회 정기 모임을 갖기로 하였다. (준비 위원 : 정민자, 박화자(Park-Fischer), 박화자, 김민자, 이숙자, 임오선, 김채봉, 정혜자)

이제 한달 후면 준비과정에 있었던 크고 작은 어려움을 딛고, 최선을 다한 독일 임원진들의 노고가 결실이 되어, 제3회 혜천대학 간호과 세계총동문회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곳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우리 모두에게 참 기억하고 싶은 행사가 되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다.



제 1 부

개 회

기 도 만 찬 조경순 (66년, 한국)

축 송.....“세레나데”(슈베르트 곡).....이정희(71년, 시카고)

영 상 환송 만찬회 및 여행 속에 심은 동문들의 추억들!

참가자 소감 발표.....황병진 (74년, 오스트리아)

제 2 부

총 회

경과 보고 및 재정 보고 송귀옥 (72년, LA)

각 동문회 현황보고 김정숙 (56년, 한국)

임오선 (64년, 독일)

김영순 (72년, LA)

민상주 (70년, 뉴욕, 뉴저지)

송웅자 (60년,캐나다)

최화자 (62년, 시카고)

이순구 (67년, 필라델피아)

세계총동문회 회장 선출 유분자, 김정숙

세계총동문회 차후 개최지 및년도 결정

제 3 부

사 회 : 라광희 (72년, 독일)

“우리 다시 만날때까지”

“헤어짐이란 또 만날 수 있다는 무언의 약속입니다.”

광 고 김민자 회장

합창.....“서편에 달이 호숫가에 질 때면!”.....다함께

“사랑으로” “해바라기” 이주호 작

예회

독일 통일은 이렇게 이루어졌다

편 집 부

1) 제 2차 세계대전 : 히틀러는 독일 영토 확장으로 1939년 3월 폴란드에 군대를 진격시키고 9월 1일 공격하므로 제 2차 세계대전을 촉발시켰다.

약 5년 반 동안 550만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유럽의 여러 지역을 황폐화 시켰다.

이때 점령지역으로는 프랑스 대서양 연안으로부터 모스크바 근교까지, 북부 노르웨이로부터 아프리카 북부지역까지 이르렀다.

1941년 6월 22일 소련에 대한 공격과 동유럽에서의 혹독한 살인 전투가 시작되었고 1941년 미국 참전과 1943년 스탈린그라드에서의 패배로 전황은 반전되었다. 전쟁으로 막대한 희생자를 냈으며 마침내 독일 제국 영토는 연합군에 의해 점령되었으며 무조건적으로 항복한 히틀러는 1945년 4월 30일 스스로 목숨을 끊게 된다.

2) 독일의 분단 및 냉전 : 1945년 5월 8- 9일의 독일 항복과 함께, 승전국인 미국, 영국, 소련, 프랑스가 통치권을 넘겨받아 수도 베를린을 4개 지역으로 나누고, 제국영토를 4개 점령지역으로 분할하게 된다.

3) 독일연방공화국(서독)의 성립 : 1949년 4월 14일 최초의 연방의회가 구성되었다. 최초의 연방(CDU)총리 콘라트 아데나워는 “자유롭고 평화를 사랑하는 독일”인으로 되돌려 놓기 위한 기반을 닦았으며, 그 뒤 테오도르 호이스(FDP) 초대 연방 대통령과 “경제기적의 아버지”로 불리는 루트비히 에어하르트 등 훌륭한 정치 지도자들이 독일에 대한 새로운 신뢰를 일으키면서 국제사회에서 새로운 평가를 얻게 되고 경제부흥이 일어나게 된다.

4) 독일민주공화국(동독)의 성립 : 서부독일에서 사회적 시장경제의 모델이 구축되어가는 동안 소련점령 지역에서는 사회주의가 진행되었다.

동서 독일의 분단은 1949년 10월 7일 독일민주공화국의 헌법 공포로 법적으로 완결되었다. 독일민주공화국은 단일명부식 비례대표제 선거를 도입했고, 독일사회주의통일당(SED)에 의한 국가와 사회의 철저한 조종과 통제로 소련의 지배를 받게 되면서 1961년 8월 13일 베를린의 중심부에 장벽이 서게 된다.

5) 분단의 극복 : 1973년 9월 18일 양 독일은 유엔에 가입하고, 1975년 두 나라가 유럽의 안보와 협력에 관한 헬싱키 유럽안보협력회의의 폐막 문서에 서명한다.

연방총리 빌리 브란트는 1971년 “오랜 적대자들 사이에서의 화해정책”을 인정받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인으로서 처음으로 노벨평화상을 수상한다.

동서독 간의 대화가 지속되었고 서독정부는 주민들을 위한 화해와 협력 사업을 계속해 나갔다. 고속도로 건설, 동독에 돈을 주며 계속하여 정치범들을 석방시키도록 하였으며 25만 명의 이산가족을 상봉시키는 등 계속 양독 화해 관계를 유지해 왔다.

6) 동독의 붕괴 : 동독이 동구권 사회주의국가 가운데서 최고의 1인당 국민총생산과 가장 높은 생활수준으로 근로자들에게 만족감을 주었으나 국민들 사이에서는 경제적으로 서독을 능가하는 것은 상상에





친구야 친구야

유(박) 공 자

(59년 졸업, 뉴욕)

청산의 꿈 옥망의 강산이
내 민 손 잡고
무작정 바람타고 오고 간
발자욱 마다
언어 청각 시각 장애인 이름 달고
서약의 기품을 지켜 낸 친구야!

가녀린 기억이 화사한 그림이다
LA 그리고 Seoul
다시 또 German
고진감내라 해도 좋고 복권당첨 같은 환희
동문들의 행진은
수그러진 어깨에
새 순들이 움트리고
피어나는 꽃 가슴은
새악씨의 다드미 소리 친구야!

환상의 그랜드캐년
혜천의 상아탑은
생전의 길몽처럼
문혀진 사연을 깨내는 금광촌이었지 친구야!

청산이 강산이 자꾸만 늙어가는
황혼 길 쏘에
낮 설은 초상화 나와 너
칠흠머리는 하얀 세월 울타리 짓고
복숭아 빛 볼 뺨에
도랑갈고 주름살 심고 나면
휘어진 뼈 마디마다
노병의 군화소리로
이쉬운 수면을 흔들어 대는
현주소의 엄살이 부끄러워진다. 친구야!

지금도 행운의 키를 잡은 나와 너
거친 파도 가르느 항해사는 아니어도
잔물결 일렁이는 호수에서
살아온 세월만큼 물보라 그려보는
철 든 돌무지개로 살자
가고 나면 어린 후배들 혜천의 금자탑 지키리

환영 만찬회 순서

2010년 6월 4일 (금) 오후 7시

제 1 부

사회 : 박정자 (62년, 독일)

- 개 회
- 애국가 제창 다함께 (이정희 인도)
- 환 영 사 김민자 (63년, 독일)
 혜천대학 간호과 재유럽 동문회 회장
- 총 회장 인사 유분자 (55년, LA)
 혜천대학 간호과 세계 총동문회 회장
- 격 려 사 이용국 이사장
 (대독 : 정민자 56년, 독일)
- 축 사 이수길 박사
- 축 사 Pro. Dr. R. Roerig
- 모 교 연 혁 조경순 (66년, 한국)
 전 혜천대학 간호학 교수
- 감사패 및 선물기증 유분자 회장
- 축 송 “목련화”(김동진 곡) 이정희 (71년, 시카고)
 바이올린 : 김유진 / 피아노 : 구수경
- 영 상 혜천대학 발전상, “제 1회 대회 영상 (20분)”
- 내빈소개

제 2 부

- 기 도 만 찬 김정숙 (59년, 한국)
- 건배제의 이수길 박사
- 사진촬영 다함께

제 3 부 : 잊지 못할 밤을 위하여!

사회 : 라광희 (72년, 독일), 황병진 (74년, 오스트리아)

- 연 곡 “하얀꿈은 아름다웠습니다!” 이영남의 다수
 각본 : 이영남(74년)
- 합 창 “고 향 의 봄” 다같이
- 광 고

폐 회





복학생으로 살고 싶다

송재금
(한국 동문회 회장)

안녕하세요. 한국 총동문회장 송재금입니다.

존경하는 혜천대학 간호와 동문 선배님, 후배님께 지면을 통해 인사드리며 참 세월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2008년 10월 한국에서 개최하였던 제2회 세계총동문회는 힘들었지만 보람있고 의미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제3회 세계총동문회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게 됨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준비하시는 모든 동문들에게 행복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곳 한국은 꽃보다 더 아름다운 5월의 신록이 사람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때 이면 생각나는 글이 있어 동문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어 올려봅니다.

◆ 나 이렇게 늙고 싶다 ◆

나는 늙는 것이 두렵지 않다.

늙는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내 힘으로 어쩔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나는 추하게 늙는 것이 두렵다.

세상을 원망하고,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불평하고, 누군가를 용서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욕심을 버리긴커녕 더욱 큰 욕심에 힘들어 하며 자신을 확대하고 또 주변 사람까지 힘들게 하는 그런 노인이 될까 정말 두렵다.

나는 정말 멋지게 늙고 싶다. 육체적으로는 늙었지만 정신적으로 복학한 대학생 정도로 살고 싶다.

늘 호기심으로 눈을 반짝이면서 사랑으로 넘치는 그런 노인이 되고 싶다.

주변사람들에게 늘 관대하고 부지런한 그런 노인이 되고 싶다.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어 늘 내 이웃에게 어떤 도움을 어떤 방식으로 줄까 고민하고 싶다.

어른 대접 안한다고 불평하기보다는 대접받을 만한 행동을 하는 그런 근사한 노인이 되고 싶다.

할 일이 너무 많아 눈감을 시간도 없다는 불평을 하면서도, 하도 오라는 데가 많아 집사람과 수시로 행방 불명이 되기도 하는 정말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노인이 되고 싶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나도 저렇게 늙고 싶다고 부러워할 수 있게 멋지게

늙고 싶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아쉬워하는 가운데 나 자신은 미소를 지으며 떠나고 싶다.



모교 연혁

조 경 순

(전 혜천대학 간호과 교수)

1940년 : 본 대학은 68년 전 일제 강점기에 충청남도 도립 대전병원 부설

간호고등학교로 설립.

1962년 : 초급대학과정의 대전간호학교로 승격 개편 인가.

1973년 : 대전간호전문학교로 명칭 변경.

1979년 : 대전간호전문대학으로 승격.

1987년 : 혜천학원에서 대학을 인수하여 복수동 캠퍼스 시대를 열게 됨.

1988년 : 정부시책으로 증과, 증원되면서 대전 전문대학으로 교명을 변경.

1998년 : 정부의 전문대학 명칭사용의 자유화 방침에 의거 지금의 교명인

혜천대학으로 변경하여 중부권 최대의 대학으로 현재에 이르고 있음.

올해로 70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는 모교는 중부권 최대의 전문대학으로 명실공히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현재 대학 전체의 규모로는 4개 계열 11개 전공과, 28개 학과에서 4,500여명의 학생들이 면학에 열중하고 있다. 특별히 간호과의 경우는 대학의 가장 중추적인 학과로써 우수한 학생들이 지원하여 약 600여명의 재학생들이 국가와 지역의 간호보건을 위한 이론교육과 실습훈련에 전력을 다 하고 있다.

간호학사 학위취득을 위한 전공화과정이 개설되고 학사학위 취득을 위해 힘쓰고 있다.

미국 간호사 과전을 위한 NCLEX-RN과정도 개설되었고 본 대학 졸업생들이 대전지역의 간호부분의 중추적인 역할은 물론 국가와 지역사회 간호보건의 큰 몫을 수행하고 있다.

본교의 혜천탑, 카리용처럼 하얀 캡의 간호사들이 사랑과 봉사 그리고 자애로써 인류애를 펼치는 혜천인들이 되기를 바란다.





1966년 128명의 파독 간호사

이 수 길 박 사

제 3회 혜천대학 간호과 세계총동문회 개최와 회지 출판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최초의 한국간호사들이 독일 땅에 첫 발을 디딘 이곳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한다니 더욱 감개무량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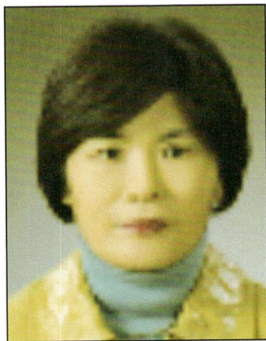
1965년 10월 의사인 오원선 보건사회부장관을 만나 간호사 파독을 요청하여 즉석에서 허락을 받고, 파독 간호사 선정을 보건사회부에서 주관하여 대한간호협회와 간호대학의 협조로 593명의 지원자 중 128명이 선정되었습니다.

이들이 본인과 함께 1966년 1월 31일, 전 독일 매스컴의 조명을 받으며 프랑크푸르트 공항에 도착하였습니다.

이들이 낯설고 물설은 독일에서 언어장애를 눈치로 극복하면서 정성을 다하여 환자들을 극진하게 간호한 덕분에 계속 한국간호사 6천여명과 간호 보조 4천여명이 독일에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진실화해과거사정리위원회는 60년대부터 파독간호요원들이 한국에 송금한 돈이 한국경제발전에 지대한 기여를 하였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 독일에 체류하고 있는 간호요원들이 오늘의 독일한인사회를 이루게 된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대전간호학교가 유능한 백의천사들을 많이 배출하고 그간 장족의 발전을 도모하여 오늘의 혜천대학으로 급성장한 것을 축하합니다.



가슴벅찬 감동을 느끼며

송 남 호
(간호학과 과장)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제3회 세계 총동문회가 열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2년 전 10월에는 제2회 세계 총동문회가 대전에서 개최되었습니다. 개교 후 처음으로 세계의 총동문들이 모인 가운데 가관식이 거행되었고, 가관을 하는 선배나 가관생이나 모두 한마음이 된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선배님들께서는 발전된 모교를 둘러보며, 30-40년 혹은 50여년전의 어린 간호학생시절로 돌아가는 회상의 시간이었고, 가관생들의 마음속에는 자랑스런 선배님들의 모습을 가슴에 담고 세계 속의 간호를 꿈꾸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두가 '간호'와 '동문'이라는 특별한 의미로 하나가 되는 세월을 뛰어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제3회 세계 총동문회는 대한민국의 경제발전과정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재독 간호사 선배님들이 계시는 독일에서 개최되어 더욱 떨리는 감격의 모임이 될 것입니다. 이 역사의 한가운데 '대전간호'를 가슴에 품은 자랑스런 대선배님들이 함께하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 벅찬 감동을 느낍니다.

비록 대흥동에서 한남대 캠퍼스로 그리고 복수동으로 옮겨졌고, 명칭도 대전간호고등학교, 대전간호학교, 대전간호전문대학, 대전전문대학, 혜천대학으로 달라졌지만 '대전간호'의 역사와 전통과 정신만은 그대로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현재 혜천대학 간호과는 70년의 역사에 걸맞은 발전을 위해 분주한 행보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대전간호'인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지키며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며 글로벌 시대에 앞장서는 혜천대학 간호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동문 여러분들의 기도의 힘을 합친다면 혜천대학 간호과는 한국을 대표하는 많은 인재를 양성해 내는 산실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모교의 발전에 변함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 주시는 세계 총동문 여러분께 학과장으로서 거듭 감사를 드리며, 제3회 세계 총동문회 모임을 다시 한 번 더 축하드립니다.





모범적인 간호교육 실천

신 경 립
(대한간호협회 회장)

제3회 혜천대학 간호과 세계 총동문회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개최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혜천대학 간호과는 경천(敬天), 위국(爲國), 애인(愛人)의 건학 이념과 인류애를 바탕으로 간호계가 추구하는 참 간호의 실현을 위해 모범적인 간호교육을 실천하는 곳입니다.

전통과 실력을 겸비한 혜천대학 간호과는 1940년 개설된 이래 5,000명이 넘는 우수한 간호인력을 배출하였으며, 이 사회의 요소 요소에서 전문가로서의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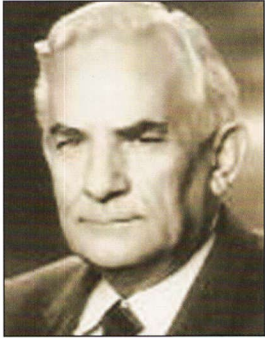
간호협회 임원, 대학병원의 간호부장, 간호학 교수, 보건·행정 기관의 요직과 학교 보건 담당자 등 전국 간호계의 각 분야에서 명망 있는 지도자들을 많이 배출하였습니다.

특히 미국, 캐나다, 독일 등 세계 각지에 진출한 혜천대학 간호과의 동문들의 열정과 도전정신은 많은 후배들과 한국 간호사들에게 좋은 본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혜천대학 간호과가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더욱 발전하고 성장해 나가기를 바라며, 혜천대학 간호과의 인재들이 한국 간호를 발전시키는 초석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끝으로 오늘의 뜻 깊은 행사를 계획하고 운영하시느라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신 유분자 총동문회 회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축하메시지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한국 간호사들을 통해 맺어진 한국과의 인연

의학박사 R. Raerig

존경하는 Schldendorf 부인

보내주신 편지, 여러분들이 프랑크푸르트에서 모인다는 소식 감사히 받았습니다.

나는 그때 마인즈대학병원 서무과장직과 라인란드-할츠 병원협회 지배인 두 직책을 수행하고 있었는데 1966년 첫번째로 마인즈와 프랑크푸르트에, 서울에서 간호사를 모집하여 올 때 직접 동행하였습니다.

그때 마인즈와 프랑크푸르트에서 한국 간호사들로부터 좋은 경험을 하였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독일의 많은 병원에서도 먼-동양에서 온, 부지런하고 친절한 간호사들에 대해 크게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까지 서울에 있는 KODCO와 독일관청과 연결하여 모든 계약을 하고, 한국에서 간호사들을 직접 동행하는 일을 내 개인의 시간을 이용하여 수행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때 내가 하는 일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뢰셀도르프에 있는 독일병원협회본부(지금은 베를린)에서 일을 직접 수행할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온 젊은 여인들은 여전히 자제와 부지런함 그리고 개방적인 자세로 생활에 빨리 적응하고 독일어를 빨리 배웠습니다.

나는 어느 모임에서나 한국에서 온 간호사들이 한국을 전에 없이 제일 잘 대표하는 대사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한 독 양국간의 밀접한 유대관계를 증명해 주듯이 마인즈대학과 단국대학 및 장항대학과 지속되고 있으며 다음달에는 단국대학교 총학장님이 마인즈를 방문하여 자매결연을 맺을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모임이 성공리에 이루어지기 바라며 독일에 오셔서 힘써 일해주신 한국간호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친절한 인사를 보냅니다.

추이: 지난 해엔 한국에서 동반해 왔던 간호사들 모임에 내 아내와 내가 초대되었습니다.





좋은 대학 만드는데 신명을 바칠 것

모 영 기
(혜천대학 총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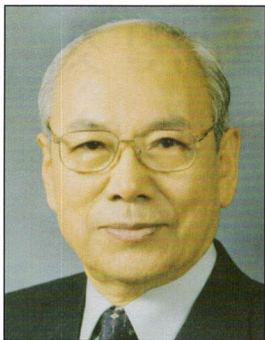
우리 혜천대학이 70년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중부권 최고의 명문 간호대학이 이제 70년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함께하고 새로운 한반도의 중심에서 다음 100년의 역사를 다시 쓰는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 1인당 소득이 필리핀의 1/5로 찢어지게 가난했던 대한민국은 어느새 세계 10대 경제강국으로 성큼 다가섰습니다. 모국과 모교를 향한 여러분의 사랑과 애정에 보답하는 2040프로젝트를 우리는 시작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독일정부가 가난한 한국대통령에게 내어준 루프트한자항공기를 타고 독일에 온 대한민국 대통령의 눈물을 기억합니다. 산 설고 물 설은 독일 땅에 가난을 이겨보려 갔던 수 많은 광부와 1만 명이 넘는 간호사의 희생은 헛되지 않아 그들의 땀과 눈물이 밑거름이 되어 반세기만에 우리 역사상 가장 찬란한 전성기에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하는 혜천대학은 이제 4년제 간호대학 승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꿈은 이뤄집니다.

혜천 70년의 역사는 우리 민족 고난의 역정을 헤쳐 나와 살아남은 질곡의 슬픈 과거였습니다. 일제의 강점으로 고난 받던 우리 민족이 해방의 감격에서 채 깨어나기도 전에 6.25전쟁의 참화를 겪었습니다. 잿더미로 변한 지구상 최빈국의 대한민국은 그러나 포기하지 안았습니다. 여러분의 눈물 어린 애국심으로 공장을 세우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은 지구상에 가장 강한 G20국가 정상회담이 열리게 되는 천지개벽의 기적을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혜천대학 역시 지방의 간호원양성소가 아닙니다. 어엿한 4년제 간호학과로 승격되는 그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모교에 부임한 총장으로 기대에 부응하는 책임자로서 최선을 다 할 각오입니다. 본인이 가진 모든 정성을 다 바쳐 대한민국 제1의 중부권 명문대학을 기어 이 건설하겠습니다.

혜천을 위한 설립자와 이사장의 헌신에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행운을 축원합니다.





남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여겨

서영훈

(재외동포교육진흥재단 이사장)

간호사는 사랑과 봉사로 헌신하는 심벌로 느껴집니다. 오늘날 한국이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발판을 만든 분들이 바로 나이팅게일의 후계자인 파독간호사임을 생각할 때 늘 존경이 앞섭니다.

의식주와 문화가 다른 이역만리 이국땅에서 오직 사랑하는 가족과 조국을 그리며 열심히 살아오신 파독간호사들의 모습을 떠올리며 장하다고 생각하며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독일만이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으로 이민을 가서 제일 먼저 정착한 이들도 간호사요, 또한 전문직업인이었으며, 일찍 뿌리내리고 정착한 이들도 간호사들입니다.

말이 그렇지 외국에서 직업을 갖고 적응한다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고, 특히 여성 직업인으로 정착하기란 그리 쉬운 것이 아니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국여성들의 부지런함과 성실함 그리고 희생적임을 이미 우리 어머니들을 통해 배워왔기에, 지금도 어느 곳을 막론하고 한국여성들은 그 나라에 잘 적응하여 살아나간다는 것을 잘 압니다.

승고한 직업의식을 갖고 한국과 해외에 진출한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교에서 맺었던 인연 하나로 세계총동문회를 개최한다니 참 훌륭하고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 제3회 세계총동문회가 독일에서 개최한다니, 만남의 기쁨을 초조하게 기다리는 여러분의 모습을 그려보며, 아무쪼록 의미 있고, 보람되고, 추억에 남는 총동문회가 되기를 바라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모든 직업이 다 소중하지만 특히 건강하지 못한 병든 사람들을 간호한다는 것은 사랑하는 마음, 감싸는 마음, 그리고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여기는 그런 마음을 요구하는 것이기에 사명감 없이는 훌륭한 간호사가 되지 못할 것입니다.

훌륭한 간호사들로서 한국을 세계에 알리는 여러분들은 인류애를 펼치면서 높은 이상을 가진 세계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라며,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빕니다.





코리안 엔젤

이 병 익

(혜천학원 설립자, 인문학 박사)

존경하는 유분자 혜천대학 간호과 세계 총동문회 회장님을 비롯한 임원 여러분!
그리고 세계 도처에서 긍지와 보람을 안고 생명을 살리는 성스런 사역에 헌신하며 오늘도 열심히 살아가
시는 동문 여러분! 특별히 유서 깊은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역사적인 제 3회 세계 총동문회 개최를 허락
하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며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과거는 현재를 기약하는 역사의 씨앗이라 했습니다.

1960년대초 국민 총소득 87불. 우리 조국은 자원도 돈도 없는 가난한 나라였습니다. 이러한 때 서독에
서 필요로 하는 간호사와 광부를 보내면서 그들의 봉급을 담보로 1억4천만 마르크를 차관으로 들여왔습
니다. 언어조차 통하지 않는 이역만리 낯선 땅에서 어리고 연약한 간호사들은 거즈에 알콜을 묻혀 딱딱
하게 굳은 시체를 닦아내고 또 닦아내며 피고름 엉킨 병상 시트를 눈물로 빠는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매
일 밤 꿈속에서 부모형제와 조국을 그리면서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여 서독인들의 찬사 속에 “코리안 엔
젤”로 불려졌습니다.

서독을 방문한 박정희 대통령 내외분, 동행한 뤼브케 대통령을 울렸던 슬픈 사연은 지금도 역사 속에 회
자되고 우리 가슴을 뭉클하게 만듭니다. 연간 5천만 달러의 서독 간호사, 광부의 송금이 조국 근대화를
이루는 원동력이 되었고 그들의 헌신과 희생의 토양 위에서 조국은 풍요와 번영을 누리며 세계 선진 강
국으로 비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그 위대한 역사의 주역 파독 간호사, 자랑스런 선배동문님들이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학
원과 대학 온 혜천가족의 이름으로 축하하며 충심으로 환영합니다.

자랑스럽고 소중하신 동문 여러분!

모래알이 쌓여 태산을 이루듯 작은 빗방울이 모여 대하를 이루듯 오늘의 주춧돌이 하늘을 뚫는 침탑으
로 혜천의 세계총동문회가 연연히 발전하기를 나중을 창대케 하시는 야훼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
다. 여러분의 영원한 모교요 마음의 고향인 우리 혜천학원은 훌륭한 선배동문님들의 아름다운 휴머니
즘 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전교직원이 열과 성을 다해 떳떳하고 자랑스런 후배들로 이 땅의
동량들로 키워나가겠습니다.



5천명을 배출

이 용 국

(혜천학원 이사장, 행정학박사)

생명의 소중함을 사랑으로 실천해온 혜천대학 간호과 동문 여러분 반갑습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한국에 이어 프랑크푸르트에서 제3회 세계 총동문회를 성대하고 뜻 깊게 개최하게 된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과 보살핌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특히, 이번 대회가 열리는 독일은 간호동문들에게 있어 더욱 뜻 깊은 지역이 될 것입니다. G20회의를 개최하고 올림픽에서 10권에 진입하는 경제대국이 된 대한민국이지만, 1960년대는 아주 힘겹고 장래가 불투명했던 보잘 것 없는 나라였습니다. 당시의 국민소득은 76달러로 120여개의 UN가입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었습니다. 3등 국가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의 중흥의 초석은 바로 여러분의 손에서 시작되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동문 여러분!

혜천대학 간호과는 1940년 개교 이래 현재까지 5,000명이 넘는 우수한 간호 인력을 배출하였습니다. 동문들은 국내외 보건의료의 각 분야에서 능력과 경쟁력을 갖춘 직업인이자, 명망 있는 지도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졸업생 여러분들이 국내외에서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음에 발맞추어 혜천대학은 중부권의 거점 대학으로, 지역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지역대학으로, 창조력을 갖춘 세계 속의 대학으로 웅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도약을 위한 인적·물적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혜천대학 발전의 핵심 축은 간호과임을 의심치 않습니다.

간호과 동문 여러분들이 1회 세계 총동문회 때부터 보내주었던 성금은 혜천대학 발전을 위해 귀중하게 쓰여 지고 있습니다. 동문 여러분의 끊임없는 애정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독일에 왔던 간호사들은 열악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헌신적으로 일해 '한국의 천사들'이라고 불렸습니다. 독일에 거주하고 있는 80여명의 혜천 동문을 포함하여, 이곳에 계신 동문 모두는 '혜천의 천사들'이십니다.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리는 세 번째 세계 총동문회에 참석한 모든 동문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와 축하를 드립니다. 아울러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라(고전15:57)"라는 주님의 말씀을 권면합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제2의 고향에서 총동문회 열며

김민자

(재 유럽 혜천대학 간호과 동문회 회장, 63년 졸업)

독일에 오시느라 수고하신 동문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2007년 미국 오렌지카운티에서 제1회 세계 총동문회가 발족된 뒤,
2008년 한국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가졌던 제2회 총동문회 개최를 위해 수고해 주신 한국 총동문회 송재금 회장님을 비롯하여 모교의 동문님들에게도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때 있었던 뜻깊은 행사는 지금도 환희와 감동을 일으키게 합니다. 모교의 제 69회 가관식에 참석하여 “하나의 촛불이 되어 헌신 하겠다”고 엄숙히 나이팅게일 선서를 하던 후배들의 머리 위에 하나하나 캡을 씌워주며 “축하한다”는 말을 전할 때, 눈물을 글썽이던 후배들의 숙연했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어느 덧 2년이란 시간이 흘러 제2의 고향이 된 독일에서 제 3회 세계총동문회를 개최하게 되니 감개무량합니다.

세계총동문회 발족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수고해 주시고, 지금의 모습으로 클 수 있도록 발판을 놓아 주신 유분자 총회장님과 초대 임원들에게 감사드리고 큰 박수를 보냅니다.

그 동안 완벽하게 준비된 잔치 상에 참여하기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는데, 막상 세계총동문회 개최를 위하여 준비한다는 것이 독일 동문들에게는 마치 정상에 오르기 전, 산 위를 올려다보는 심정이었습니다. 재회의 기쁨이 넘치는 “만남의 장”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우렸고, 또 그렇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한국, 미국, 캐나다, 스위스, 오스트리아 그리고 독일에서 참석하시는 90여명의 선.후배 동문님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날을 기다리는 마음은 설렘과 함께, 눈덩이 같이 더 커짐을 느끼면서, 세계가 지구촌이라는 현실도 실감합니다.

아낌없이 모든 행사를 위하여 지원과 격려를 해 주신 동문 여러분들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전하며, 앞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이 모임이 지속되기를 기대하면서 동문 여러분의 건강과 행운을 기원합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사랑과 평화의 선구자

유 분 자

(해천대학 세계총동문회 회장)

우리 한국 민족의 현대 역사에 있어서 가장 빛나고 자랑스러운 해천대간호과 제 3회 세계총동문회를 독일에서 개최하게 됨을 뜻 깊고 감격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서있는 이 땅은 지난 1966년 1월 이후 수많은 한국 간호사들이 이주 해 와서 활동하며 생 활해온 곳입니다. 128명의 첫 파독 간호사 중에는 우리 대학을 졸업한 동문 간호사도 들어있었습니다.

그들은 외롭고 병든 독일인들에게 나이팅게일이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한국 국민들에게 젖줄이 되고 조국의 어려운 경제를 살리는 천사들이기도 하였습니다. 한국 전쟁이 판문점 휴전 협정으로 멈춘지 13년 이 지난 1966년, 우리 한국의 국민소득은 114달러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에는 2만 달러가 넘고 있으니 얼마나 큰 차이입니까? 그때 서독의 경제는 유럽에서도 손 꼽혀 있었 고 또 한국인 간호사들의 초봉도 자그만치 640마르크 였다고 합니다. 그 뒤 20여년 동안 계속된 파독 간 호사들의 이주는 우리 조국의 경제를 산업 중진국으로 발돋움 하도록 하였습니다.

독일 간호사들이 유럽에 건너와서 활동하면서 큰 성공을 거둔 우리 동문 간호사들의 이야기는 프로그램 책자에 가득 실려 있습니다. 그들의 이야기속에는 따뜻한 독일인 남편들과 똑똑한 자녀들에 관한 것이 담백 들어 있습니다. 이 자리에는 독일 전역뿐만 아니라 다른 유럽 지역에서 온 동문들도 많이 있습니다. 지난 44년 동안 쌓아온 소중한 추억과 에피소드 그 하나 하나가 꽃 봉우리와 같이 아름답기 그지없습니 다. 그 많은 이야기는 우리가 헤어질 때 까지 밤을 새워가며 쏟아놓을 것입니다.

조국의 심장부에 전문대학으로 자리잡은 해천대학 간호과 세계총동문회의 세 번째 모임인 이번 대회 동 안 우리 모두는 한몸 한마음으로 단합하여 모교를 돕고 세계에 흩어져 살고 있는 동문들 사이에 연대와 연합의 밧줄을 맺어 앞으로 다가오는 세월에는 한 가족으로 살아가도록 비전을 그리기를 희망합니다.

이번 프랑크푸르트 대회를 위해 설립자 이병익 박사님과 이용국 이사장님께서 후원금으로 성원해 주심 에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친구야, 친구야” 늘 생각해도 가슴이 벅차고 심장이 뛰는 순간순간이 되도록 총 동문회 임원들은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사랑과 평화의 선구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